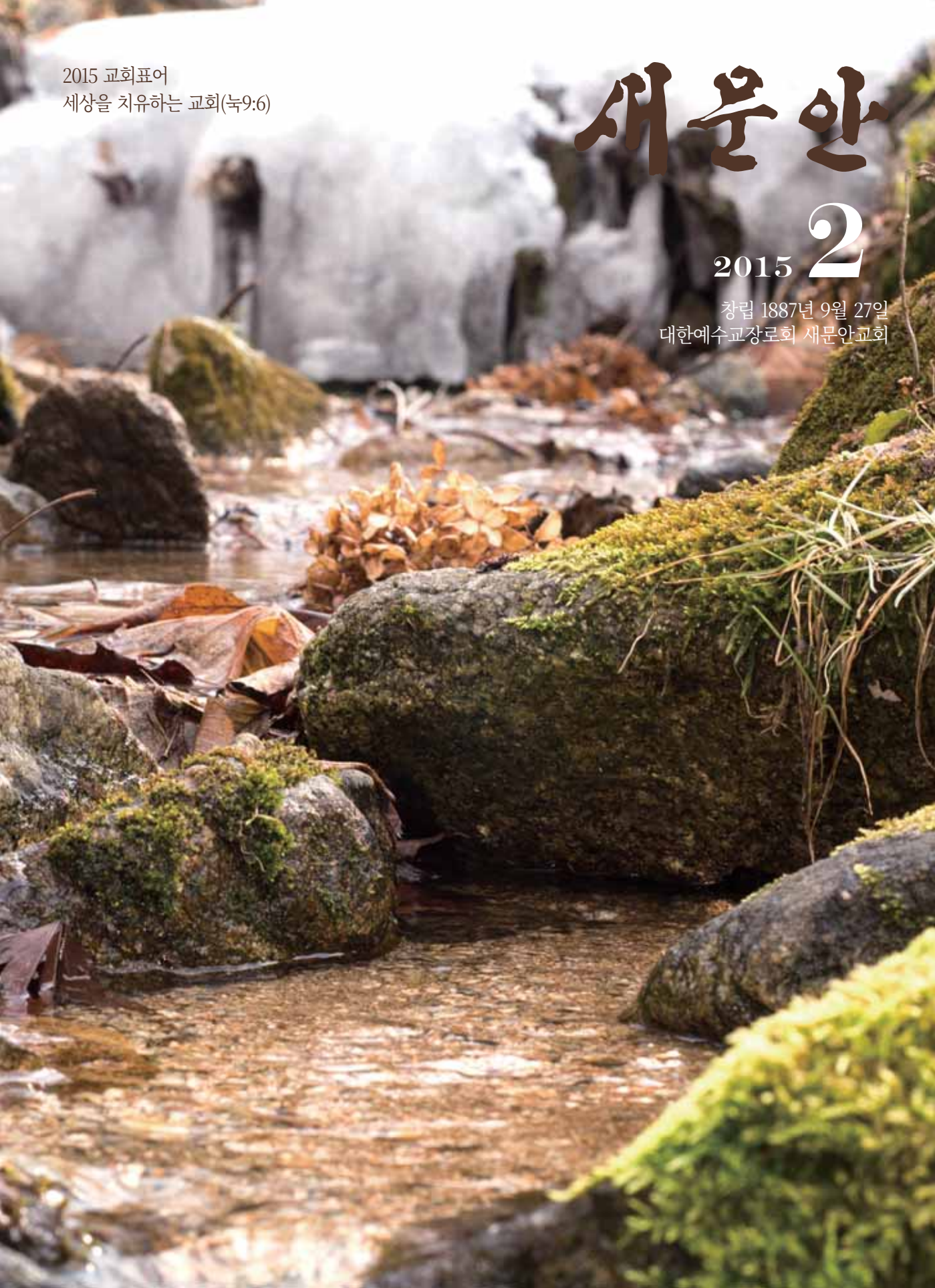


2015 교회표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눅9:6)

새문안

2015 2

창립 1887년 9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은혜 충만하고 행복한 주일을”



언더우드교육관1층 영아부실 내부



언더우드교육관1층 어린이집은 영아부로 사용되고 있다

교회학교 1부(부장 조성도 장로)에 속한 영아 1·2부와 유아1·2부, 유치1·2부는 2014년 7월 첫 주부터 언더우드 교육관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

1972년 예배당 시절에는, 영아부는 언더우드 기념관 1층 어린이집에서, 유아부와 유치부는 신관 2층 유아부실과 유치부실을 사용했다.

이전을 하면서 영아부는 언더우드 교육관 1층 어린이집에서, 유아부와 유치부는 언더우드 교육관 지하 3층 유아부실과 유치부실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각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편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아부는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전 9시 30분과 오전 11시 30분에, 유아부와 유치부는 3부와 4부 예배 시간인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새온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이명인 집사(유치 2부 김태영 어린이 어머니)는 “4부 예배 전에 있는 찬양 연습 시간부터 4부 예배를 마칠 때까지 교회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줘서 평온하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관련기사 35면)

글 _ 김현화 집사(새문안 웹진) 기자

02

Saemoonan Presbyterian Church

February 2015

2월 교회력 | 충성의 달

- 1일(주일)
해외선교부 헌신예배
- 8일(주일)
1남선교회 헌신예배
- 15일(주일)
1여전도회 헌신예배
- 22일(주일)
2교구 헌신예배

	새문안 강단 말씀대로 되어 좋은 세상 · 이수영 담임목사	02
새문안소식	새문안소식 교회학교 뉴스 구역 · 교구 이야기	04 07 09
이달의 특집	충성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 이승구 목사 은퇴제직들의 소회 · 하무웅 공로집사 · 서혜정 공로권사 · 오광길 명예장로	13 14 16
기획특집	2030세대의 암울한 자화상을 바꾸려면 · 이은경 편집장	19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향하여	청년 좌담회 · 서원석 집사	22
청년광장	청년2부 수련회 후기 · 최명진 교우 새문안 신혼부부모임 “동행” · 박선영 교우	26 27
선교탐조등	평신도 선교사로 떠나며 · 이형준 집사	29
새성전건축	건축뉴스 · 김영대 안수집사 건설분과 워크숍 · 김현화 집사 새문안동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준공예배 · 이창진 집사 광야이야기(7) - 영아 1·2부와 유아 1·2부, 유치 1·2부 실 · 김현화 집사 1972예배당 추억 - 종탑 · 원영희 권사	32 33 34 35 36
새문안캠페인	어울림 가족예배 · 교육1부 어울림 교육팀 어울림 가정예배 현장을 찾아서 · 신강 집사 가족	38 40
새문안 한마당	이 한권의 책 - 개신교신학 입문 · 이수범 교우 사회와 기독교 - 가정, 학교, 교회가 함께 가야할 길 · 김영대 안수집사 믿음으로 강건하게 - 강박장애 · 박종학 안수집사 이달의 수필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 천민지 교우 이달의 시 - 창 · 백영빈 교우 지상사료전시 - 최초의 연합예배 · 김흥배 안수집사	41 42 44 46 48 49
양육과 섬김	훈훈한 고백 - 이근성 명예집사 · 윤영자 공로권사 부부 어울림교육 신년 세미나 · 정평진 전도사 어울림 교육 신년 세미나 후기 · 김예솔 · 이은정 교사 태국단기선교를 다녀와서 · 박대석 전도사 태국단기선교 후기 · 김지수 · 박준용 교우	52 54 56 57 58
생명살림	구제역, 생명에 대한 폭력의 결과 · 김정례 권사	62
성경퀴즈	성경퀴즈 · 서경애 권사	63



이수영 담임목사

말씀대로 되어 좋은 세상 창1:1~5

신구약성경 전체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자연적 환경들이 최초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를 비롯한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빛과 어둠, 낮과 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이고, 온갖 종류의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도 다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임을 강조합니다. 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풀과 채소와 열매들을 먹을거리로 삼는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없었고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본문 3~5절) 말함으로써 시간도 역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본문 3절)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창1:6~7)고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저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생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주권적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혜와 사랑 안에서’ 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생물체들이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후에 생물체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2)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그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거나 마지못해 하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자신의 의지”로 하셨습니다.

신구약성경 전체의 첫 문장인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간결하고도 단도직입적인 선언을 통해 하나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지음 받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처음부터 계신” 분임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90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시니이다.”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또한 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형태와 질서와 의미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본문 2절)고 했는데, 이것은 “그 어떤 존재나 형태나 질서나 의미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음”을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 많은 피조물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창조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전체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반복적인 문장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러 이러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형식을 조금 줄여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됩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좋았더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좋은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면 아주 좋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도무지 좋은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경악과 낙담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데?” 하는 탄식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좋은 것”이라는 답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인간사회뿐 아니라 온 창조세계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긴 원래 인간의 삶뿐 아니라 온 창조세계에 혼란과 긴장과 갈등과 대립관계를 가져온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좋아져야 세상이 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좋아지고 온 세상이 좋아지는 길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
 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²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³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⁵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1:1~5)

새해 첫 성찬식

1월 4일 주일 I - V부 예배 시 이수영 담임 목사가 성찬예식을 집례하였다.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떡과 잔을 함께 들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하였다.

제직 헌신예배

1월 4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제직 헌신예배로 드렸다. 인도는 제직회 부회장 김용담 장로, 기도는 부회장 김명숙 권사, 성경봉독은 서기 이형수 안수집사, 설교는 김중은 목사(전 장신대 총장)가 담당하였다. 김중은 목사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모든 제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청지기서약을 하였다.

공로장로 추대식 및 제직은퇴식

1월 11일 주일 3부 예배 시 공로장로추대식과 2부 예배 시 제직은퇴식이 있었다. 은퇴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시무장로 → 공로장로(1인)
오세영
- ▶ 안수집사 → 공로집사(4인)
하무웅 류강수 김진기 한충섭
- ▶ 시무권사 → 공로권사(16인)
배이남 서혜정 김경숙 이경애 이경자
황산성 송증자 강영옥 서숙자 문채은
강경자 윤정자 김경애1 김옥순 이신자
최영민
- ▶ 재직장로 → 명예장로(2인)
오광길 조재국
- ▶ 재직권사 → 명예권사(2인)
박정자 이영희

- ▶ 서리집사 → 명예집사(47인)
강신집 고원록 김광일 김성운 김영호
김 용 김정부 김종태 김준홍 김천경
김형만 박흥기 서신웅 안경덕 오세진
이경의 이수남1 이승희 이영균 이윤수2
이인수1 조무현 조철조 최영해 최진한
태의선 황건찬 (남 27명)
김명자2 김성자1 김성자2 김순희5 김영순2
김영애2 김영희2 김절자 김형순 박주례
신동희 신순길 양민숙 오가실 이말순
이승기 이신자2 임길자 최임순 한영자
(여 20명)



교육1부 교사 헌신예배



1월 11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교육1부 교사 헌신예배로 드렸다. 인도는 교육1부장 조성도 장로, 기도는 초등456 II 부장 최광국 안수집사,

성경봉독은 초등123 II 부장 정복경 권사, 설교는 장석현 목사가 담당하였다. 장석현 목사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의 특송과 근속교사(5년, 10년, 15년)시상 및 교사 임명이 있었다. 이어서 청소년 태국 단기선교 파송식이 열렸다.

서울노회 종로시찰 연합제직수련회



1월 14일 오후 7시 대학로 동송교회에서 서울노회 종로시찰 연합제직수련회가 열렸다. 인도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기도는 동송교회 서정오 목사, 성경봉독은 송동교회 정경철 목사가 맡았다. 서울교회 원로목사인 이종윤 목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란 회개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후 종로구 연탄사랑의 나눔을 위해 봉헌의 시간을 가졌다. 봉헌기도는 연동교회 오세정 장로가 하였다.

기도회 시간에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둘째, 교회마다 전세대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셋째, 복음의 삶을 위해 넷째, 2015년 헌신과 수고의 결단을 위해 기도하였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

소서(1절)’을 부른 후 새문안교회 이수영 담임목사가 축도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전국여전도회주일 연합헌신예배



1월 18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여전도회연합 헌신예배로 드렸다. 인도는 1여전도회 회장 이승리 권사, 기도는 2여전도회 회장 황선희 권사, 성경봉독은 3여전도회 회장 김귀옥 집사, 설교는 구미정 목사가 담당하였다. 구 목사(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외래교수)는 “그 너머에서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1교구 헌신예배



1월 25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1교구 헌신예배로 드렸다. 인도는 총무 신효철 권사, 기도는

지도위원 이철호 안수집사, 성경봉독은 부총무 진경숙 권사, 설교는 신정우 목사가 담당하였다. 신정우 목사는 “도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후 헌신을 다짐하는 특송이 있었다.

모바일 《새문안웹진》 창간

새문안교회 미디어홍보부(부장 유진규 장로)는 1월 21일 모바일 《새문안웹진》을 창간했다. 이는 SNS를 통해 한층 새롭고 폭넓게 문서전도와 선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

전 새문안교우들에게 모바일 매체로 발송하는 《새문안웹진》에는 기존의 《새성전건축》 외에도 월간 《새문안》을 웹진으로 재디자인한 《새문안》, 대학청년부 간행물과 새로 창간을 기획하고 있는 어린이 웹진 《무지개 새문안》(가제)을 실을 계획이다.

《새문안웹진》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누리집에 올리는데, ‘새문안교회’ 앱을 설치하고 메인화면의 웹진을 클릭하면 《새성전건축》과 《새문안》지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제작은 미디어홍보부의 새문안웹진팀(팀장 원영희권사)에서 월간으로 제작하며, 황윤선 집사가 웹진 편집장



을, 황은진 집사가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이수영 담임목사는 “새성전 건축의 진행상황이 교우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다양한 교회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공급되길 기대하며 창간의 기쁨을 나눕니다” 라고 창간을 축하하였다. 미디어홍보부장 유진규 장로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정신을 담은 《새문안》지와 역사적인 여섯번째 새성전 건축 진행과정을 알리고 기록한 웹진 《새성전건축》의 통합·창간 의미를 강조하며, 교회 내 모든 출판물을 통합하여 담을 수 있는 소통의 역할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

담임목사 동정

- 1월 21일 ~ 29일 태국 랑퐁 중앙위원회와 메썬어이 한테기독교 교육센터 이사회 참석 차 출국했다.

알림마당

- 2015년 교회학교 교사모집을 한다. 모집대상은 담임교사, 찬양율동(유치1부, 초등123 I 부), 반주자(유치1부, 초등123 II부, 초등456 II부)로 지원서 배부 및 접수는 사무처와 광화문빌딩 303호에서 한다. (문의 010-4781-7852)
- 자모실을 주일(III부, IV부) 광화문 빌딩 지하 132호 권사기도실에 추가로 마련했다.

교사 헌신예배

1월 11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로 드렸다. 이날 140명이 넘는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육1부 지도 목사인 장석현 목사의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느 해보다 더욱 교사로서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교사들의 특송 후 교회학교 특별순서로 근속교사 시상과 교사 임명, 청소년 태국 단기선교팀 파송 순서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교사대표로 임명된 고등부 유재희 선생과 김슬기 선생은 “과거 담임교사와 학생의 관계였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현재는 같은 부서에서 함께 교사



교사 헌신예배 시 2015년 교사 임명식

근 속 교 사 명 단	
5년 (17명)	김미영 박하경 김예지 김예슬 양 선 전민희 최지은 박진선 박자연 황인숙 금혜정 김현일 이주호 안찬울 이성경 김상훈 원형일
10년 (10명)	박현정 이경화 이미화3 김미자 신명숙 이혜순 정영희 민지연 최경숙 김종관
15년 (2명)	윤혜숙 안병익

로 섬기고 있다”는 진행자의 소개는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현재 새문안교회 교회학교에는 이렇게 교회학교 학생이 대학부로 올라가면서 스승과 제자가 한 부서에서 교사로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새문안 청소년 태국 단기선교 파송식

지난 1월 11일 오후 찬양예배시 11기 새문안 청소년 태국단기선교팀 파송식이 진행되었다.

11기 태국팀은 교역자 3명, 교사 4명, 중·고등부 학생 21명으로 총 28명으로 구성되었고,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간 선교 일정을 진행했다. 이 일정 동안 치앙마이, 치앙라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학교, 산족마을을 중심으로 워십 댄스(Worship Dance), 스킷드라마(Skit Drama), 태국어 찬양 등의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새 (관련기사 57면)



11기 청소년 태국단기 선교팀 파송식

내 스마트폰 속에 '새문안'을!

‘새문안교회’ 애플리케이션(App) 내려받으세요



새문안교회 App 화면

새문안교회 애플리케이션(App)은 2011년 12월에 개통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 정보를 활용하고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 설치 방법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새문안교회 애플리케이션(App) 설치 방법
‘삼성 갤럭시’, ‘SKY 베가레이서’, ‘LG 옵티머스’ 기종은 마켓 또는 Play 스토어에 접속해서 “새문안교회”를 검색한 후 설치하면 된다.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는 모바일홈페이지(<http://m.saemoonan.org>)에 접속한 후 ‘즐거찾기’에 추가하고 새문안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바탕화면에 빼내서 사용하면 된다.

새문안교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새문안교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는 첫째,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서 ‘<http://m.saemoonan.org>’로 접속하거나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 앱에서 QR코드를 검색한 후 QR코드 앱을 설치,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면 된다

둘째는 페이스북이 있는데 ‘<http://www.facebook.com/saemoonanchurch>’로 들어가면 설교 말씀과 교회 소식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트위터가 있다. ‘<https://twitter.com/#!/@saemoonan>’로 들어가면 역시 설교 말씀을 볼 수 있다.

새문안교회 App의 주요 기능

새문안교회 App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 소개, 교회 연혁, 예배 시간, 위치 안내, 성경 찬송, 말씀(주일과 5부예배 설교말씀), 찬양(찬양대 찬양), 웹진(e새성전건축, e새문안), 교회소식(알림, 교우 경조사), 주보(주별 교회 주보), 주일 3~4부 예배와 주일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인터넷 생방송 중계 등이다.

새문안교회 App이 모바일 환경에서 새문안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큰 쓰임 받는 복음의 통로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새



새문안교회 QR코드

구역 · 교구 이야기

1교구 | 신년 권찰회 가져

“예수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우리 기뻐하네”

“우리 사랑하네”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새로운 헌신의 마음을 다지며 서로를 응원하며 찬양으로 지난 1월 8일 1교구 신년 권찰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교구보다 빨리 시작되는 1월25일 1교구 헌신예배의 일정으로 12월 말부터 임원회의를 통해 부지런히 계획하고 기도준비하면서 맞이하여 권찰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부 예배에서 신정우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13~14, 히브리서 12:1의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대를 향해 목적있는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 저 천성에서 달려오는 우리를 향해 구름처럼 뻗뻗하게 도열해서 중보 기도하는 증인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신입총무의 인사와 함께 ‘새해에는 권찰회100% 출석률, 구역예배 100%를 목표로 뛰어보자.’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며 각 구역장의 사명과 역할, 연간 계획 보고 그리고 구역 활성화를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4명의 부총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로 1교구 총 27구역 534 세대를 위해 일하는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구역예배 현황을 토대로 구역예배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허명자 구역장(종로4)과 손금락 구역장(종로5)의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구역 맞춤형 예배가 가능하며 구역장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모든 힘든 조건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경숙 부총무의 ‘구역장의 사명과 역할’ 발제는 작은 교회로서의 구역 조직의 필요성과 구역장의 실제적 역할과 관리에 대하여 선명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습니다.

올해 1교구 표어는 ‘사랑을 품고 발로 뛰는 구역권찰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새문안교회의 2015년 표어인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맞추어 교구 안에서 여러 모양의 치유가 필요한 교우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찾아내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수고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수가 더해지는 교구가 되려고 합니다. (1교구 총무 신효철 권사)

2교구 |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구로

부족한 저에게 교구총무로 귀한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교구를 섬길것을 소망한다.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전 총무님들의 격려와 할수있다는 말의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도 목사님이신 강동협 목사님 중심으로 임원들과 권찰들이 협력하여 주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귀 기울이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2교구 총무 남봉인 권사)

3교구 | 겸손과 눈물로 섬길 수 있길 기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분들과 2015년 3교구 일을 맡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어린 사람이 총무 되었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은 안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임원직 부탁에 흔쾌히 OK 하시는 등 시작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교구 지도목사님께서 신년 교구 임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 하나님 관심 밖의 일을 제멋대로 하며 헛수고 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제 자량이 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교구의 모든 섬김과 나눔이 영혼을 구하고 영육의 강건을 돕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활동에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찾아가며 세상을 치유하는 2015년

3교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통해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길 소원합니다.

한 해 수고하며 섬길 기쁨의 시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3교구 총무 안신애 권사)

4교구 | 한층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교구로



새해를 여는 4교구 행사로 4일간, 1월12(월)~15(목) 성경 통독사경회와 권찰 수련회(17.토)를 가졌다.

모세오경을 범위로 한 통독사경회(광화문빌딩 지하 137호)는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난과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경건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1월17일(토) 4교구 권찰, 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는 4교구 찬양단의 찬양과 신정섭 총무 인도로 성북6구역 지도위원 심종구 장로의 기도, 윤지옥 목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권찰” (잠25:13)이란 제목의 설교로 4교구 감사예배로 진행됐다.

이어서 “구역장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윤지옥 목사(4교구지도목사)의 특강이 있었다. “먼저 구역장은 신실해야 한다. 그리고 구역장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구역장은

시간이나 물질로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성실함을 통해 구역원들과 교인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 구역장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 구역은 성장하고 성숙한 구역이 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씀이었다.

4교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며 구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성전이 세워지는 올 한 해 좀 더 열심히 모이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 값진 시간을 마련해 주신 신정섭 총무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익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주신 윤지옥 목사께 감사를 드린다.

“충성된 자는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25장13절 말씀) (성북 4구역 부구역장 박춘필 집사)

5교구 | 마음 다해 충성하고 순종하는 교구로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총무라는 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총무를 하셨던 권사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시작하면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고, 또 지나고 보니 모두가 은혜와 기쁨이었고 보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목사님과 임원들 간에 두 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몇 분의 임원들이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을 확신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저와 임원들이 순종만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5교구의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모든 교우가 주안에서 성령충만케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교구가 될 줄 믿습니다.

5교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5교구 총무 서차숙 권사)

6교구 |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구역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힘쓸 것

2015년 한해 동안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구역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또한 6교구 구역장님들, 지도위원 및 임원분들, 목사님과 협력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6 : 6개 지역(강서, 금천, 구로, 광명, 부천, 인천)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구 모두가

교 : 교역자 임종희 목사님과 함께
구 : 구역과 신약, 성경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2015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교구 총무 이정숙 권사)

7교구 | 하나되어 소통하는 교구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7교구 총무 직분을 맡으면서 주변 정리를 하고 기도하던 중 ‘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거구나,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평생 시에 늘 읽고 암송하던 말씀이 새롭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이영화 목사님과 임원, 권찰들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소통하는 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교구 총무 이명화 권사)

8교구 |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 영광돌리는 교구 되길

2015년 8교구 총무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힘껏 헌신하려 한다.

올해 박용균 목사님이 지도하는 우리 8교구에는 강남·송파·강동·분당·판교·성남·광주·용인지역의 44개 구역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새문안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8교구 가족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 한다. (8교구 총무 강연옥 권사)

9교구 | 사랑이 넘치는 교구되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부족한 저에게 9교구의 총무를 맡겨 주시니 부담과 책임감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러나 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올 한 해를 김명자 목사님과 함께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9교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희 9교구는 동작, 영등포, 양천구 세 구역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실감하며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저희 임원들과 구역장, 부구역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구,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먼저 앞장서는 교구, 샘솟는 기쁨과 정이 넘치는 교구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교구 총무 오천영 권사)

10교구 | 부흥하고 열매 맺는 교구될 터
살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교구 총무로 10교구를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0교구 원당, 화정, 일산, 중산, 탄현, 파주, 김포, 대화 구역으로, 교회에서 위치적으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승구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맞추어 기도하며 헌신하려고 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온 교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평한 가운데 협력하여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10교구가 더욱 더 부흥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10교구 총무 최옥순 권사)

11교구 | 새해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교구

11교구는 장마가 목사, 알란치맥 목사, 보독찌 목사가 지도하며 동북아·몽골·베트남 교우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교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11교구가 될 것이다.

동정

● 김경희 권사(5교구)

1월 22일 저녁 8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열린 2015 신년음악회 지휘를 하였다.



● 이재규 집사

(7교구, 이덕실 장로, 권순호 권사 장남)

(주)수암제약(www.sapharm.com) 대표로, 2014년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수암제약은 곡류추출물이 아닌 지방분해 효소와 유당분해 효소 등 진짜 효소를 다루는 전문 제약 회사이다.



● 배영주 집사(7교구)

1월 31일(토) 오후 2시 예술의전당에서 있는 최훈차 콰이어의 '사랑의 송가' 곡 중 솔로를 맡았다.



● 장석훈 명예집사(10교구)

'달 · 포도 · 잎사귀'란 시로 유명한 부친 고 장만영 시인 전집 4권을 출간했다. '장만영 전집 (총4권)'에는 장만영 시인의 시 584편을 비롯해 미발표 작품과 산문, 일기 등이 희귀 흑백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교계소식

한국로잔위원회 2015년도 정기총회

2015년 1월 14일(수) 오전 7시 15분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새로운 임원으로 의장에는 이광순 총장(주안대학원대학교), 부의장에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박상은 장로(안양샘병원장), 총무에는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 협동총무에는 손유탕 목사(남대문교회)를 선출하였다. 로잔운동은 1974년 로잔에서 개최된 제1차 로잔대회, 198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로잔대회, 그리고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를 거쳐 오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신학운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한국로잔위원회는 세계로잔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

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새문안교회 이수영 담임목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아시아로잔 위원회 위원이다. **새**



이달의 특집
충성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이승구 목사"

은퇴 제직들의 소회 "하무웅 공로집사 · 서혜정 공로권사 · 오광길 명예장로"



충성을 묵상할 때, 김미현, 2015. 1.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말미에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신34:1-4)
"충성은 대가없는 순종 즉 오직 하나님 한분만 증거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현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기,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이승구 목사

충성과 관련된 성경구절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충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충성은 ‘어떤 역할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맡은 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충성입니다.

이러한 충성이 지닌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충성’이란 보통 아랫사람이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 때 윗사람은 왕이나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우선, 종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되면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하며, 힘의 크기 차이 때문에 억지로 충성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충성은 기본적으로는 상하 관계에서 성립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기 전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역시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습니

다. 그런데 주인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맡았던 종에게 한 말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마 25:21, 23)

21절과 23절에서 동일하게 주인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충성에 내포된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큰 일을 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 강점기하에 있을 때 일본이 시키는 대로 신사참배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에 충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충성스런 개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창한 일에만 충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

의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앞의 구절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충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도리이자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면 주인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커다란 상급을 받습니다. 충성스런 신하와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성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불꽃 가운데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묘사됩니다.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조차도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아볼 수 없는 충성스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두고 하나님은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민 12:7)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 “나와 함께 들어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자신있게 고백했습니다.(여14:8)

그러나, 성경에서 충성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계 1:5)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구속 사역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

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요, 증인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도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충성 역시 성령의 열매로 맺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 “trustworthy”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충성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혀 믿을 만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신실함을 확인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수차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제 갈길로 가고자 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삶에서 술하게 일어났던 기적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처럼 신실함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새**

15년을 하루같이 교우 안내 사랑과 격려, 소통의 기쁨 누려

먼저 건강하게 살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둔밤 쉬되리니 네 직분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쉼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찬송을 부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330장 찬송이 어느덧 내 이야기가 되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러나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 또한 70쯤이라 교회가 너무도 적절하게 은퇴하게 해 주신 것도 생각하면 감사하다.

’88년도에 아내 따라 찾은 교회가 새문안교회다. 교리도 성경말씀도 모두 나에게는 어렵고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힘들었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표로 알게 하셨다. 바로 세례 받던 날이다. 목사님의 손길이 내 머리에 닿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

그 후 세상 일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또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쁨도 누렸다. 제직부서 봉사

는 물론 특히 교우안내 봉사는 15여 년을 한결같이 하였다. 교우안내봉사를 하면서 많은 교우들도 알게 되었고 많은 격려와 사랑을 교우들에게 받은 것 같다.

제직회는 은퇴하지만 또 상록회라는 제일 만 어른들이 계시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막내다. 웬지 막내라는 말에 약간 철 없이 기대어 보고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고 잘 섬기며 함께 소통하며 즐거운 생활을 해 나갈 생각이다.

바람이 있다면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일들과 교회와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 이미 시작한 교회건축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하여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세**



하무웅 공로집사

의료선교, 고아원 · 양로원 봉사... 많은 일 감당할수록 기쁨도 커져

하나님을 만나 더할 수 없는 즐거움에 잠겨 충성하자 다짐하고 실천하며 살다보니 어느덧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던 그 때 그 기억들이, 그 기쁨들이 내 마음에 멈춰 있는 듯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벌써 은퇴를 하다니 삶의 한 자락에 마침표를 찍은 듯한 안도감과 함께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물러나야 한다는 허전함과 섭섭함이 가득히 밀려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 의료봉사팀을 따라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한국 곳곳을 누비며 다녔던 그 때가 참 보람 있었고 즐거웠었다. 때로는 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밤낮의 기온차로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한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한자리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던 그 때 그 모습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또한 구역장을 맡아 하면서 구역식구가 아파서 대·소변을 치우고 청소해 주던 일, 또 고아원, 양로원, 홀트아동복지회, 정원종합복지원 등에서 봉사하면서 그 곳에 계신 분들의 목욕과 식사를 돕고 가지고 있는 미용기술로 봉사했던 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각 기관에서 감사패를 주셨을 때와 서울특별시장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을 때가 새삼 떠오른다.

돌이켜보면 지난날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던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들 속에는 뜻을 같이 하여 먼 길도 마다않고 기꺼이 동행하며 수고해 주셨던 감사한 분들이 있었다. 유치2부 부장 직분도,

하나성가대 부대장 직분도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의 사랑과 신뢰로 인해 감당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든 하나님은 내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고 그로 인해 직분을 감당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몇 배나 더 크게 느끼게 해주셨다. 그 분들로 인해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었다.

제직 은퇴라는 하나의 마침표를 찍게 되니 새신자 때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당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특히 세례와 권사안수를 해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김동익 목사님과 나의 첫사랑이 깊은 신앙으로 자라도록 본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그 때 그 목사님들과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워진다.

3년 전부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봉사팀장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니 섭섭함과 쓸쓸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제직 은퇴가 삶의 끝이 아니므로 나는 이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섬기려 한다. 봉사하러 가는 발걸음이 주는 행복을 언제까지라도 누리고 싶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실 때 그 발걸음이 주는 행복을 따라 오시지 않았을까. **세**



서혜정 공로권사

‘은혜로운 퇴직’했지만 병원 · 집수리 봉사는 계속할 것

6·25피난시절, 크리스마스 때 사탕과자를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니다 말다 하다가 군복무 후 아는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40대 초반에 타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두렵지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얼마되지 않게 느껴지는데 은퇴를 하게 되니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후회와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

나는 2004년에 정년퇴직하고 가끔 이수영 목사님이 기고한 글로 은혜를 받았는데 직접 뵈고 말씀을 듣고 싶어 새문안교회에 이명 등록했다. 그 후 5주 동안 새교우교육을 받고, 교우안내 봉사를 시작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경조부에 배치 받아 집수리 봉사, 만나예배 봉사, 주방 봉사, 장애인 목욕봉사, 수련회 자원봉사 등을 찾아 다니며 봉사하다보니 많은 교우들을 만나 알게 되었다. 병원 봉사와 집수리 봉사는 75세가 정년이니 계속 할 예정이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봉사하며 배운다.

시립병원에서 냄새나고 초췌한 모습들의 치매, 중풍 환우들 머리를 감겨드리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 침대에 눕혀드리면 그 환자의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환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행복해지고 피곤도 잊게 된다.

한번은 창신동 독거노인 댁에 갔는데 지붕이 낡아 비가 새며 집안에는 비둘기 똥이 군데군데 널려 있었다. 외모는 깨끗해 보이지만 치매환자였다. 지붕은 너무 낡아 올라가 수리하기 불가

능하여 천막을 맞춰 씌우고 내부는 합판으로 온벽을 대고 도배를 하였고 장판을 깔아 새집을 만들어 드렸다.

집수리 봉사를 가면 대부분의 집들이 발 들여 놓을 공간이 없도록 고물, 폐지, 쓰레기가 쌓여 있어, 정리해서 고물상에 팔아주기도 하고 집안을 청소하기도 한다. 그 중 한 집은 형제 중 동생인 사람이 옷 속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고 하여 쓰레기통과 헌옷 수집함을 열어, 버린 옷을 찾아 주머니에서 돈을 찾아주기도 했다.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 내 손길이 필요한 곳 찾아 더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 싶다. 새성전건축을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새성전을 가득 채우는 일과 현재까지 했던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봉사와 나눔 생활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

은퇴하면 1남 선교회 고참 회원에서 상록선교회 줄병이 되는데 줄병생활 열심히 하고, 새문안교회 평생교육원(경로대학)에서 3년 봉사했는데 계속 봉사하며 영원한 새문안 인으로 살고 싶은 맘 간절하다.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오광길 명예장로

<새문안>은 올해 교회표어인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눅 9:6)를 뜻대로 이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전 교우와 함께 고민하고 또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특집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향하여”를 마련합니다.

이번 호엔 연애·결혼·출산이라는 정상적인 삶을 포기, ‘3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불안한 자화상과 함께,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이들 청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새롭고 대안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지를 성찰해보는 좌담회를 기획해 심습니다.

교회표어에 따른 기획특집의 향후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재순서

- 1)불안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 2)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 3)‘세월호’ 아픔을 극복하려면
- 4)위기가정을 구하려면
- 5)분단국가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 6)고통으로 신음하는 지구를 회복시키려면
- 7)광복 70주년, 한·일 관계회복을 위하여
- 8)한국 교회, 다시 신뢰와 기대를 얻으려면
- 9)초고령화 사회, 더욱 절실해진 노인 인권과 복지
- 10)양극화 심화현상과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면
- 11)‘나눔의 삶’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2030세대의 암울한 자화상을 바꾸려면

무관심과 좌절의 껍질을 뚫고 더 나은 사회로의 전진을 꿈꾸어야

직장인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큰 공감을 자아냈던 TV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는 독백한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다.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드라마 주제의식의 한 축을 이루는 이 대사는 지금 우리 2030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드라마 전편에서도 절절이 드러나 있듯이,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직면한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 그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다. 이는 단순한 취업을 넘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진입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이고, 향후 자신의 삶이 주류, 즉 성공을 향해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통계 수치로 전망되는 청년들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청년 실업, 민주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대 위기로 부상

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청년들은 평균 1천 300만원의 빚을 진 채 사회로 발을 내딛는다. 더구나 대기업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추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휴학을 반복하고 졸업을 늦춰 5~6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도 전체 대학생의 3분의 1인 100만 명에 이른다. 반면 모두가 열망하는 대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연간 2만여 명에 불과,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드러낸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0% 수준에 그쳐 OECD(경제협력개발

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무려 10%P나 낮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0대 대기업 중 2015년 채용 계획을 확정된 180곳 중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는 업체가 31.1%, 늘리겠다는 업체는 18.3%다. 10대 대기업의 대졸 신입공채 규모도 2012년 3만 2440명, 2013년 3만 400명, 2014년 2만 9400명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이런 단적인 수치는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10.3%). 이처럼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55세 이상 중장년층 취업률은 2012년부터 청년층 취업률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일자리를 놓고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청년실업 대란의 후유증은 심각함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 욕구와 의지는 그만큼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취업 미경험자의 취업이 직장 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재취업보다 더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나날이 늘어가는 청년 비정규직은 장기적인 고용불안이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 굳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 20%대에 다다를 날도 멀지 않았다. 청년층이 유의미한 경력을 쌓고 자산을 모을 기회가 그만큼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다. 내면적으로는 일자리 찾기에 지친 나머지 무기력감에 빠져 청년들의 사회와 국

가에 대한 불신과 냉소, 분노가 치솟을 것이다. 청년 실업은 국경을 넘은 세계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이 결국은 민주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최대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과연 ‘길’은 있는가.

‘중소기업=좋은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은 국가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동반성장을 꼽아왔는데, 그 핵심은 중소기업에 청년 인력을 공급하는 정책적 지원이다.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에게 학자금을 대주고, R&D 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배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교 한국폴리텍V대학(김제캠퍼스) 교수는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은 나쁜 일자리로 은연 중 규정하는 사회 인식에 강한 회의를 표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측면에서 세상에 나쁜 일자리는 없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린다면 낮은 임금, 불안한 고용, 취약한 작업환경, 미약한 복지혜택과 시설이 그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개선, 기능공 우대정책 확산 및 투자, 8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을 50% 이하로 낮추기 등의 다각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전북도민일보, 2015. 1. 27).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 100인 이상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일례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은 2005년보다 2007년에 고용자 수가 평균 20.3명 늘었지만,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17.9명 줄었다는 것이다.

패기만만한 청춘의 때, 창업으로의 도전도 적극 권장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우리의 젊은이들은 청년 기업가는 꿈꾸지만 이를 감연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후 생존율은 59.8%로 2008년 61.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신생기업 10개 중 7개는 5년 안에 문을 닫는 현실이 큰 원인일 것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도 창업 1년 안에 성과가 나와야 단계별 지원을 해주기에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단기적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반면 실패의 맛은 쓰디쓰다. 부도기업인재기협회는 부도기업인의 60%는 행상,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고 있고, 노숙자도 20%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청년 사업가가 자살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따른 고용 창출을 들고 나왔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사업을 실패해도 재창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 기업가정신 교육 서둘러야

2009년 EU(유럽연합)은 WEF(세계경제포럼)를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기업가 정신의 의무 교육화를 권했다. 전문가들도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

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때부터의 직업교육을 꼽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 중인 중국의 창업자 지수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5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보고서 조사 결과)는 최근의 뉴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정부의 '전국 대학교 졸업생 취업프로젝트' 등 대학생 위주의 예비 취업자 지원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우울한 자화상을 접하면서 2013년 타계한 세계적인 작가 스테판 에셀의 저서 <분노하라>가 떠오른다. 프랑스 사회에 분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분노하라>에서 에셀은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레지스탕스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경고하며 젊은이들을 향해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눈감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노해 좀 더 나은 사회로의 전진에 힘쓰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다. 특히 사회 양극화, 외국 이민자에 대한 차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에 저항하고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 그를 위해 힘을 보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무관심이야말로, 청년들에게, 최악의 삶의 태도라고 역설한다.

청년들이 한 치 앞의 일자리에만 급급하다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의와 사랑에 열렬한 염원을 품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청년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역설적인 결론인가.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 주님이 제시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할 때 청년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

이은경 집사_편집장

교회에 바란다, 힐링을 뛰어넘은 공감과 용기를



좌측부터 서원석 집사, 박은영 교수, 민경찬 장로, 김디모데 교수, 박보연 교수

- **일시** 2015년 1월 25일
- **장소** 새문안교회 미디어홍보부실
- **참석자** 민경찬 장로(사회), 박보연 교수(대학부, 90포레), 박은영 교수(청년1부, 89포레)
김디모데 교수(청년2부, 84포레), 서원석 집사(자료 정리)

민경찬 장로 오늘날 청년들은 선배세대들이 겪지 못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 3포 시대(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라는 용어가 있고, 인간성과 집장만 까지 포기한다고 하여, 5포 시대라는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주된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좌담회를 시작할까요?

박보연 교수 저는 장래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도 대학부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그저 단순히 놀고먹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비전을 꿈꾸고 실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그저 뒤쳐지지 않기 위한, 목적 잃은

바쁨 속에서 남을 살아가다 보니, 삶의 궁극적인 목표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의 삶의 자세와 사회에서의 현실적인 생활의 괴리가 있어서, 그 두 삶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데도, 혹은 균형을 잡고 싶은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어딘가에 이 고민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거나, 함께 고민해 줄 만한 멘토(mentor) 또는 롤 모델(role model)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내용만을 교회에서도 되풀이하며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영 교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역시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때부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고, 사회에 나와서도 학자금 상환의 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직장이나 보수의 수준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실제 가능한 일자리는 초라한 것이 현실이어서, 그 간격이 너무 큼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많은 청년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디모데 교수 저는 결혼을 최근에 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앞으로의 사회가 좋아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물려주는 것이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저성장 상황이며, 세계의 청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고민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과거의 성장위주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는 데, 성장이 아닌 분배를 주장하고 복지를 강조하면, 이를 이념적인 논쟁으로 몰고가서 집단간의 대치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외국에서는 피케티의 저술 등에서 시작해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두를 제기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와 외국은 논의되는 복지의 수준이 달라서, 고부담 고복지가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의 이분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맞지 않고,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자식세대가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민경찬 장로 우리나라의 현황이, 재원은 없는데 복지는 하겠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젊은 청년들의 고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집중하다보니, 배금주의와 경쟁만을 강조하는 풍조가 획일적으로 전파되어서, 오늘날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대이며, 위기의 시기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은영 교수 저는 오늘의 교회가 물질적 풍요를 행복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이 시대 가치관의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복지 보장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기본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게을리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상을 보면 가치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대하는 복지의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먹는 문제의 해결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 정도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행복하기 어렵다’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기독교청년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에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지, 그렇게 교회가 사회에 제시할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박보연 교우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교회와 교회 밖의 상황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한 마음의 힐링의 개념을 넘어서서 머릿속에 깨달음이 얻어지는 순간, 그 괴리감이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가 관건이 되려나요?

김디모데 교우 저는 교회와 사회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실제로는 미약하며, 우리는 사회 수준에 맞는 교회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사회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원래는 교회가 사회의 가치관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회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은영 교우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며 현실적 어려움 앞에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조금씩 포기하고 타협해온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싶은 유혹에 극심하게 시달리곤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사회의 가치와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연약해지는 것이 문제로 생각됩니다.

민경찬 장로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였는지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혹시 교회안에서만 논의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지? 교회가 사회와 격리된 상황에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등을 고민하며, 사회의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교회에서도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김디모데 교우 과거는 비교 대상이 작았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잘 알려져서, 비교대상이 많아지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있어서, 출산과 육아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 못하면 남들에게 욕 먹는 것으로 스스로 속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추고 구비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처럼 되고, 자녀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므로, 출산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민경찬 장로 우리 사회의 빈부 양극화에 대하여 어떤 생각인지?

김디모데 교우 교회내에서 보다는 교회간에 양극화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으나, 불공정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시급 보장 등의 조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영 교우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갖추지 못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내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가진 분들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보연 교우 어찌면 우리가 빈부 양극화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소위 말하는) 위의 계층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양극단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내려고한다는 점도,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김디모데 교우 저도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양극화를 인정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경찬 장로 중국의 시진핑은 서민들의 생활에 뛰어들어서, 서민들이 가는 만두집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회 지도층이 일반 서민들과 다른 세계에 살면 서로의 간극이 더 멀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낄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보연 교우 교회가 단순히 한 주간의 청년들의 개인적인 삶에 국한된 치유를 뛰어넘어,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류에 아무 생각 없이 편승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그 사회의 아픈 부분 혹은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교육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계속해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디모데 교우 가깝게는 교회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교인들의 희생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고용 확대도 필요하므로,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이 복지관 봉사를 하는 것이 복지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민경찬 장로 오늘 청년들의 좌담이 매우 유익하였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교회의 역할이 말씀과 힐링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청년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어야 하며,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한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에 대한 심도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좌담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새**

오감, 경험, ‘영적’ 하나 됨

청년 2부 동계수련회는 실제 ‘동계’가 아닌 3월 중순에 예정되어있다.

‘수련’이라는 글자를 떠올려보면, 겸허한 자세로 어느 한정된 영역에 집중하고, 부족했던 무언가에 대해 단련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영적인 수련은 기도가 중심에 서있고, 수련회에서는 기도시간이 많이 있고, 철야를 넘어선 뜨거운 영적인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다. 무척이나 정적이며 집중력이 필요하고, 때론 감각의 통로들을 잠시 거둬두기까지 하는 그런 뜨거운 시간들이다. 기도의 시간은 수련회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기도 하고, 교인들이라면 익숙한 순간들이다.

‘청년’을 떠올려보면, ‘익은 것 같아도 아직 익지 않은’ 같은 표현이 잘 어울린다. 어느 것에 고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한다.

작년 하계수련회는 ‘활동적’이었다고 생각되면서 새로운 경험들이 많았던 기억이 난다. 공간적인 이동이 잦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는 점인데, 직접 체험을 통해 혹은 오감의 통로를 충분히 개방하고,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등 매우 능동적인 영적 ‘수련’이었기 때문이다.

2박 3일의 일정 속에 충청도를 거쳐 전라남도 여수까지 자리를 옮겨서 활동하였고, 활동량 또한 많았다. 충청도 소재의 교회들을 탐방하였는데, 순교의 역사의 중심에 서있던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그 곳을 섬기는 교역자들로부터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하여 듣는 순간이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설명 속에 빠져들면서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버리면서 까지 지켜야 했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 곳

의 교역자들의 공통점으로 본다면,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었고, 바로 그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자발적인 신념들이 묻어나올 정도의 열정이었던 것이다. 간증 속에서 느낀 그들의 눈빛, 힘이 들어간 목소리는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자리를 옮겨 전라남도 여수의 공기까지 호호하게 되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애양원을 방문하였고, 한센병을 앓고 있는 혹은 이미 치유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서로의 안녕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레 악수도하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도 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체험하자는 목적을 넘어서 그들로부터 위안 받고 앞날의 축복을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재 3월에 있을 청년2부 수련회는 현리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회 중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호혜적인 따뜻한 방식의 영적교류를 바라본다. 요즘 영적인 삶을 벗어난다면, 매우 차갑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그럴수록 ‘바람직한’ 호트러짐을 바라본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굳은 것을 깨트려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정도, 본질을 잃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시도들을 수련회 안에서 경험해보고 싶다.

수련회 준비동안 기도가 필요하고, 주변의 많은 도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도와 도움을 통해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됨에 따라 경험될 소중한 영적 체험들이 기대되는 순간이 가까워진다. 



최명진 교우
청년 2부
제2총무(81도래)

서른 가정이 모여 나누는 따뜻한 공감

잠시 새문안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첫 애가 태어난 이후, 우리 가정은 살고 있던 일산으로 신앙의 터를 옮겼다. 광화문까지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멀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새문안 대학부, 청년부 사람들과는 당면한 삶의 과제가 너무 달라, 우리 가정이 고민하고 있었던 육아 속의 신앙, 일과 삶, 믿음생활의 밸런스 같은 부분에 대해 나누어 이뤄지지 못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났다. 좁은 자모실에서 울고 떼쓰고, 뛰어놀고 싶어 하는 아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훈련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고, 우리 또한 아이와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어 모임, 집회에 나가지 않게 되면서 점점 새문안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 물론 탁아부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첫 아이, 젖먹이 아이를 떼어 놓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쉽게 결정되지 않았고, 사실 그때는 아이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다.

결국 부모와 아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일산 승리교회를 찾아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승리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일산 승리교회는 만2세 미만의 영아들이 교회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부모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전히 부모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없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기



85도래 이재겸 성도와 82도래 박선영 성도 부부, 자녀인 유치2부 이가운, 영아부 이주언.

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첫째 딸이 영아부를 졸업할 무렵 둘째가 태어났고 둘째 덕분에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영아부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길 기도했다. 간혹 말씀에 목마름을 느낄 때면 부부가 번갈아가며 본 예배를 드렸는데 2주에 한번으로는 영적 허기를 채울 수 없었다. 나는 매주 구역예배와 일대일 양육을 받으며 목마름을 채워갔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바쁜 직장생활을 하며 매일 큐티로 버티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직장에서의 고된 나날들, 가정에서의 힘든 육아 이렇듯 나눔과 채움없는 하루하루는 우리 부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새문안교회에 신혼부부모임 생겼는데, 가볼까?

어느날 대학부 시절 전도사님이셨던 유창근 목사님으로부터 신혼부부모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부부는 마주앉아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곳 그 곳은 어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1월 7일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언더우드교육관 3층 대예배실(언더우드홀)에서 건축위원장 이덕실 장로의 인도로 수요일예배와 함께 열렸다.

설교 후 미디어홍보부에서 제작한 지난 1년간 새성전 건축 진행 과정과 건축 현장소식 영상을 보여 주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1교구 총무인 신호철 권사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새성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안수집사회 회장인 김성성 안수집사는 “건축과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건축현금 수입 총 330억 넘어

2007년, 새성전 건축을 결정한 그해 12월, 5천2백5십만 원에서 출발한 건축현금 총 수입이 2014년 말, 33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6월말 구 본당 철거를 예고하고 고별예배를 드린 이후로 건축현금 수입이 대폭 늘어나 2014년 한 해에만 87억여 원을 봉헌하였다.

저금통 현금도 2014년 9월 말, 1억 원을 돌파하고 현재 9백여 만원이 추가로 모였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진행

지난 12월 문화재 시굴조사에서 새성전 건축부지 내에 조선 후기 유적 2개 층을 발견하여 2월 말까지 추가로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설계 부분에서는 실시설계 도서를 2월 20일까지 납품받아 교회 내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 변경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변경 신청도 준비 중이다.

건축위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조선시대 건물 흔적

새해부터 건축위원회 조직을 건설분과, 지원분과, 백서분과의 세 분과로 나누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건설분과에서는 지난 1월 10일(토) 오전 8시부터 건축 일정 등 현안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16일(금)에는 설계자와 새해 첫모임을 갖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7일(토) 오후 3시부터 당회 회의실에서 건축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열고 2015년 새성전 건축 착공을 위해 현안을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새**

기사 제공 _ 김영대 집사/실행위 부서기

모든 건축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진행합니다

1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언더우드 교육관 지하 314호에서 2015년 새롭게 조직한 교회건축위원회(위원장 이덕실 장로) 건설분과 워크숍이 열렸다.

김주현 장로가 위원장을 맡고 윤호기 장로가 서기를 담당하는 건설분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구성했다. 건축 전문위원으로는 박명규 안수집사와 이선 집사, 기계와 음향과 IT 전문위원으로는 한도성 안수집사와 주영민 집사, 공무 전문위원으로는 우경섭 안수집사, 토목 전문위원으로는 김홍수 안수집사, 전기 전문위원으로는 허성범 안수집사, 인테리어 전문위원으로는 박병근 집사를 위촉했다.

건설분과 출범 첫 회의는 분과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건축위원장 이덕실 장로가 개회기도를 한 후 찬송가 64장을 다함께 부르며 예배로 시작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김주현 장로가 새성전 건축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회의와 건축 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새성전 건축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지난 일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 남은 일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진행하여, 전반부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파악했고 후반부



에서는 앞으로 진행할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15년 건축 일정에 따라 조속한 착공을 위해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를 순조롭게 받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했고, 서울시와 종로구의 도시 계획과 도시 정비에 따라 새성전 건축 설계를 검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교회 학교의 분반공부와 단체 활동을 위해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며, 새성전을 완공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는 인테리어를 구상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넘게 새문안 교우들이 새성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새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설계를 검토했다.

네 시간 넘도록 이어진 워크숍은 각 분야별 건축위원들이 시대를 보는 통찰력으로 새성전 건축 계획과 설계를 세밀하게 살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새**

취재, 글 _ 김현화 집사(새문안 웹진) 기자

(표2에 이어서)

새문안동산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준공예배

2015년 새해 겨울 날씨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포근한 1월 10일(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82-25번지 새문안동산에서 육철 안수집사(새문안동산 개발팀장)의 인도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준공예배를 드렸다.

조성도 장로(재산위원회 서기)의 기도 후 박용균 목사는 “반석위에 지은 장막”(창33:17)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숙곳’이란 지명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동식 간이 천막을 지어 임시처소로 사용하던 곳이었다는 유래를 설명했다. 박 목사는 새문안동산에 생활근린시설로 지은 이곳이 ‘숙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조성도 장로의 경과보고, 향후 계획과 이덕실 장로(재산위원장)의 격려사 후 예배를 마쳤다.

2014년 9월 18일 착공예배 후 생활근린시설로 지어진 건물은 총 3개의 동으로 1개 동이 180㎡(60평)으로 지어졌으며 12월 30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올해 1월 7일자로 토지대장에 임야에서 대지로 등재하였다. 시공사로는 (주)창성종합건설(대표: 이한철)을 선정했고, 현장 시공 책임자(소장: 권인영-본교회 집사)는 내 집을 짓는다는 수고로 콘크리트 바닥은 물론 건물 내·외부 도장까지 잘 마무리 하였다.

육철 안수집사는 여러 해 동안 새문안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지목상 임야에 산재되어 있던 71기의 묘지(무연고묘지 포함)를 문봉동 새문안동산 묘지 허가구역으로 이장 완료 후, 임야에서 대지(903평)로 형질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창고) 3개동을 준공 완료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가장 보람있는 한 해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회를 전했다.

근린생활시설 1·2·3동은 지역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선 임대를 계약하였으며, 서무부(부장 이혁 장로)에서는 3동 1/3을 교회(구 본당)에서 옮겨간 물품들의 보관창고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준공예배를 위해 차량 배차를 허락해 준 이혁 장로와 참여하여 준 이덕실·이낙중·주 광·조성도·백승현·권재천·박광호 장로와 육철 안수집사 외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불철주야 새문안 동산을 섬겨주신 이동기 집사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그 가정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드린다. 

글_ 이창진 집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어린 아이를 둔 제가 긴 시간 아이를 맡기고 찬양대 봉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분들의 수고로 기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언더우드 교육관이 예전보다 좁아지고 지하에 있어서 교육 환경에 대해 걱정을 좀 했는데, 막상 새로 마련된 공간을 사용해 보니 이 모든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지하 3층에 들어서면 유아부와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 장소와 벽면을 아기자기하게 장식해서 지하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밝은 빛이 느껴집니다.”

유아부를 담당하는 김유리 전도사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서 부장과 부감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 장소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예상과 달리 편하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며 살포시 미소 지었다.

“여러 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곳은 없는 지 수시로 살펴 주시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주 청소를 해 주셔서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문안 교우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실이 있는 지하 3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 후로 교우들이 많이 붐비는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주고, 걷는 것을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좁은 공간에서도 밝게 웃으며 생활하는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주시고, 빛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좁은 환경에서 어른들의 배려와 양보를 직접 느끼며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고 불편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선함으로 바꾸는 어른들의 지혜를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한다.

“새성전의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계속 바른 기독교 교육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는 인격적이며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새문안에 주시는 새성전 그 은혜를 나누는 127대 기도 중 39번) 

글_ 김현화 집사(새문안 웹진) 기자

귀한 종소리를 속히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소박하던 '새문안 종탑'에 든든히 걸려있던 종을 처음 만난 곳은 언더우드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있던 유치부 아기들의 신발장 곁이었다. 1999년, 아니면 2000년? 연도는 기억에 없지만, 막내가 아직 초등부에 다니고 있어서, 기념관을 자주 드나들던 때였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있을 때도 많았던 기념관 입구 오른쪽 구석 아기들 신발장 옆에 꼭꼭 숨어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던 종. 그야말로 새해 아침마다, 절기마다 그 우렁찬 소리를 자랑하던 우리 새문안의 종인지도 모르고, 아이를 데리러 튀어 들어갔다가, 구석에 있는 종은 신경도 쓸 여유도 없이 기념관을 튀어나오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약간 싸늘한 가을. 기념관 입구 신발장 곁에

서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던 어느 날 오후, 문득 눈에 들어온 종!

“아니, 여기 종이었네. 웬 종이지? 이렇게 큰 종이지?”

먼지를 폭삭 뒤집어쓰고, 아이들이 버린 휴지 조각으로 범벅이 된 채 그렇게 그 ‘종’이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함께 아이를 기다리던 엄마들과 지나가는 분들께 이 ‘종’이 뭐냐고 물으니, 원래 오래 전부터 거기 있었다는 말 밖에 못들었고 모두 “어머, 그게 종이었구나!” 할 뿐이었다.

당시에 봉사하고 있던 홍보출판부로 달려가 “누구 기념관 왼쪽 구석에 먼지 뒤집어쓰고 있는 큰 종에 대해 아는 분 없나”고 물었다. ‘어떻게 저 큰 종을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방치했을

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홍보부에서 봉사하던 연로하신 한 집사님이 교열을 보다가 손을 들었다. “큰 종이라면 언더우드 종을 얘기하시나요?” 반문했다.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 종이 어디로 갔는지 늘 궁금했는데!”라며 그 분이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섰다. 그리고는 기념관으로 함께 달려갔다. 중학교 때부터 새문안교회를 다녔다는 그 분은 그 큰 종의 종소리를 들으며 컸다고 했다.

기념관 왼쪽 구석, 어지러운 신발더미 곁, 껌 껌질과 휴지 조각, 먼지로 덮인 종을 발견한 그 집사님은 “아이쿠!” 하더니, “어찌 이 귀한 종을” “어떻게 이렇게 먼지더미 속에!” 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지금은 은퇴하신 그 집사님은 새문안 종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는 고(故) 원일한 장로와 인터뷰를 한 후, 《새문안》 지면을 빌어 종의 존재를 교우들에게 자세히 알리자고 했다. 그런 놀라움과 노력이 퍼져서 아마도 당회까지 들어간 듯하다.

어느 날 예쁜 지붕을 갖춘 종탑이 새문안계단 왼쪽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종탑을 봉헌한 분이 정말 고마웠다. 겸손한 종탑이었지만 우리 새문안의 소중한 종을 10여 년 잘 보관해 준 덕에 새해 아침마다, 삼일절, 광복절, 9월 창립기념주일, 성탄절마다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1972년 예배당’ 고별예배에서 그 멋진 종소리를 들려주고는 철거되어, 이제 새성전 완공을 함께 기다리고 있다.

보물은 진흙을 닦아내고 먼지를 털어내야 빛을 발한다. 새문안교회의 소중한 정체성 중의 하나,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역사성. 이 역사성도 소중히 가꾸고 또한 정말 빠르게 기록하고 다져 나아가야 더욱 빛을 발하게 되리라. 그 리스도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함께 광화문을 뒤흔드는 우렁차고 복된 그 종소리를 새성전 종탑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글_ 원영희 권사(새문안웹진 팀장)

새문안 종의 역사

흔히 언덕 위의 교회당 하면 종소리를 연상하지만, 언덕위의 벽돌예배당이었던 새문안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다 (종의 설치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문안지 2011년 7월, 새문안의 보물이야기 1편 참조).

당시 종탑예배당은 좌우에 종탑이 서 있고 왼쪽에는 고딕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인 첨탑이 있어 종이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첨탑이 없는 오른쪽에 있었다고 한다. 평일에도 새벽기도회와 삼일기도회 때면 울리던 이 종은 종탑예배당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자주 타종못했고 그나마 1972년 모더니즘식 예배당을 지을 때는 비용문제로 종탑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당시 투시도에는 건물 좌측에 별도의 탑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여건이 될 때 대지를 확보하여 건축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끝내 종은 설치되지 못했고 30년간 언더우드기념관 1층 한 칸에 방치되는 신세가 된다.

그러다 2002년 교회창립 115주년 기념음악예배를 드릴 때 예본찬양대에서 이를 임시 조립하여 타종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 명예장로의 헌금으로 진입 계단 왼쪽에 제대로 자리 잡아 지난 10여 년간 매해 여덟 가지 주요 예배 시에 타종해 왔던 것이다. 지금은 철거 공사하면서 종탑을 해체하였고 종만 문봉동 창고에서 임시보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

2월 교육주제 '죄와 구원'

인도 | 가족대표

여는 기도 인도자
 신앙 고백 다같이
 찬 양 찬송가 66장 다같이
 성경봉독 로마서 8:31~39 말은이
 말씀나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 말은이
 함께 드리는 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
 다 더 넓어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
 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외침 다같이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을 새로
 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실 하나님
 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
 다!”
 주기도문 다같이

▶ 주제 해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윤리적·도덕적 문제와는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질서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다. 이러한 불순종의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오늘의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로마서 3:10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선포한다. 또한 로마서 5:12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으며(롬 3: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롬 3:23).

그런데 이러한 절망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구속의 피를 믿는 자와 화해하시기로 결정하셨다(롬 3:25). 우리가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른다 하여도 심판 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지 않는 죄 사함의 노력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고백이야말로, 개혁 교회 복음의 핵심인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로 매듭지어진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신학의 핵심이라면, 멸망 받을 위기에 처한 세상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신학의 핵심인 것이다. 창조의 주인공도 구원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그리

스도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뢰고 용서를 받는 것뿐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받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참 길이며, 참 믿음인 것이다.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자.

▶ 말씀나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지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나, 재미있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벌써 행복합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어볼까요?(잠시 질문에 대해 생각한 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나요? 벌써 마음이 행복하지요?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인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요.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때는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세계 제일의 요리사가 만든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살아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도 한 때는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야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때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그 벌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셨지요. 바로 예수님이예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행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구원자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참 기뻐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준다하여도 절대 예수님하고 바뀌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영원한 행복은 보석, 옷, 게임 같은 것들이 주는 행복보다 훨씬 더 값지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교육1부 어울림 교육팀 제공

* 어울림 단계별 통합교육은 월별 한 주제로 교육을 함으로 세대 간 통합교육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월별 주제 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가족예배입니다. 매월 교육 주제에 따라 새문안지에 제공되는 가족예배 순서지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가족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대 잇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가정으로



초등123 II부 신지민, 신지후, 유아부 신찬휘, 할머니 배이남 권사, 아빠 신강 집사, 엄마 남수정 집사.

엄마의 빈 자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여러 문제들로 시달리던 요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초심을 잃고 미뤄왔던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배를 통해 부모의 신앙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고 더욱 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좋은 길,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맺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참된

복과 고귀한 것들, 그 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니 그 동안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들이었다. 앞으로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지민, 지후, 찬휘가 되기를 기도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

- 데살로니가전서 5장16~18절 말씀 -

글_ 아빠 신 강 집사

신학의 본질을 맛볼 수 있는 기쁨



『개신교신학 입문』, 칼 바르트, 복있는 사람, 2014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이란 없고, 오직 ‘철학적 사유’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무슨 무슨 주의를 줄줄이 읊을 줄 알아야만 ‘철학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통념과는 달리, 철학에겐 고유한 본질이 있음을 직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학은 어떨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을 “하나님에게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Theologia a Deo docetur, Deum docet, ad Deum ducit)라고 말했던 바 있다. 그렇다면 신학 또한 흔히들 말하는 ‘신학’의 의미에서 신학은 없고, 오직 신학적 추구만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진 않을까?

이 책이 안겨다 주는 즐거움은 바로 그 신학의 추구 혹은 신학의 본질을 맛보는데 있다. 개혁주의, 합리주의, 경건주의, 정통주의, 자유주의 등 등 온갖 난무하는 학파에 소속됨으로써 정체성을 부여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반대로 그것들에 소속되지 않음으로써 대자적으로 존재하기도 거부했던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신학함의 맛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말씀이라는 신학의 자리에서, 놀람과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고독과 의심과 같은 기본적인 위협에 맞선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리만큼 그는 기도와 봉사 그리고 사랑을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바르트가 신학으로 안내하는 도정이다.

그는 이처럼 신학자의 이름과 함께 수많은 학파를 나열하여 신학을 설명하지도 않고, 소위 신학의 분류(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를 끌고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런 분류가 있기 전, 초기 교부들이나 청교도 신학자들의 어투로 독자들을 신학의 입구에 세운다. 그리고 인생 황혼기에 들어선 어느 노학자의 인생이 집약된 깊은 사상을 지극히 일상적 단어를 통해 들려 준다. (실제로 이 책은 바르트의 마지막 강연을 책으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강연에서 우리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었던 신학자, 나치의 파시즘이 유럽 전역을 휩쓸던 시절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신학에 맞서 끝까지 논쟁을 펼쳤던 20세기 가장 논쟁적인 신학자, 결국엔 신정통주의라 불리며 현대 신학의 초석을 마련했던 신학자, 바로 그 칼 바르트의 사상의 굵이굵이를 일상적 용어들로 만날 수 있다.

용어가 일상적이라 하여 이 책이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또 인도하길’ 원하는, 아퀴나스의 정의대로라면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신학을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겐 더없이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권하며 새해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질 우리 새문안을 기대한다. 새

글_ 이수범 교우

가정, 학교, 교회가 함께 가야할 길



김영대 안수집사
(화곡중학교 교사)

1. 가정

모 방송국의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 “아빠 처럼”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네 쌍둥이에게 아빠의 행동을 바른 생활의 모범으로 제시하지만 네 쌍둥이는 평소 아빠의 그릇된 모습을 따라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한 장면을 소개하면, 물건을 잘 정리하지 않아서 찾지 못하는 네 쌍둥이에게 “아빠처럼”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평소에 아빠가 스스로 찾지 않고 아내에게 찾아달라고 한 그대로 “여보~”하고 부르는 말을 따라함으로써 웃음을 선사한다. 결국 아빠는 잘못을 인정하고 “아빠가 미안해.”라는 멘트로 끝이 난다.

2. 학교

최근 교육방송국의 신년특집 교육대기획 다큐멘터리 5부작 ‘공부 못하는 아이’가 화제다. ‘공부 상처’라는 제목의 1부는 선생님이 15점짜리 시험 성적을 전체 학생 앞에 공개함으로써 좌절을 맞고 속상해서 울었다는 한 학생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외에도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부 못하는 아이로 산다는 것은”을 주제로 공모한 내용과 인터뷰들로 꾸며져 있다. 성적 이상주의를 대변하는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다.

3. 교회

“무너진 교회학교를 세우고, 대형교회와 미자립·농어촌 교회가 동반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영택(경주제일교회 목사) 신임 총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의 당면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정 총회장은 “현재 교단 산하 3,000여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고 전체 교회의 50%가량이 중·고등부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부는 도시 몇몇 교회에만 있다”며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14년 9월 24일 교계뉴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심각하다. 그리고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필자의 오랜 교직 생활에서 체득한 것을 들라면 가정교육의 부재라고 말하고 싶다. 물질만능주의, 배금사상이 만연한 탓에 청소년들조차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의 꿈이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버렸다. 더 이상 자신의 부모가 자녀들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1. 가정’에서 풍자한 것처럼 아빠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최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그에서는 “아빠가 미안해.”라고 반성을 하건만 현실은 아버지 게처럼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게에게는 앞으로 걸으라고 강

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2. 학교’에서 소개한 다큐멘터리에서 보듯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의 공부 역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일뿐이고 자기 계발이나, 사회나 국가에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 1년간 자살을 계획한 적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20.9%(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이다. 그런데 그중 72%가 넘는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할 만큼 마음이 우울한 이유로 ‘공부’를 꼽았다고 한다. 상위권 아이들조차 ‘공부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성적 상위 1%의 아이들을 제외한, 혹은 포함한 대다수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찍히고 불행해지는 곳이 되고 말았다.

풍문으로 들은 어떤 교회의 교회학교의 현실도 답답하기 매한가지다. 신실한 부모의 성화에 마지못해 나오는 청소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기 보다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친구와 잡담, 심지어는 예배 후에 친구들과 놀러가기 위해 화장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마저도 다행으로 여길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3. 교회’에서 소개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이런 교회학교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범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범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기독교 교사라면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는 헌신 등), 다음 세대를 기르는 교회학교 교사의 기도가 함께 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는다.

이와 함께 우리 교회의 다양한 대외적 활동이 학교와 교회의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면서 교우들의 다양한 참여를 기대한다.

먼저, 청소년문화선교부의 교회 밖 청소년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이다. 이혼, 실직 등으로 곤란을 겪는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교회의 지원금을 가지고 찾아가 보살피 주는 사랑부모와 사랑형제로 헌신하는 교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비기독교학교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주는 상담어머니들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있거나 성적 부진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불안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기도와 헌신이 언젠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으로,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2007년 서울노회협력 사업으로 설립한 새문안교사교육원의 사역이다. 교회교육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사의 질과 능력을 고양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 매년 2학기 동안 다양한 강의를 통해 최고 수준의 교회학교 교사로 훈련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받은 교사들이 본 교회로 돌아가서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교회학교를 부흥시키며 예전의 학교 교육보다 앞섰던 주일학교의 명성을 되찾는데 이바지하리라 믿는다.

우리 교회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교회의 어머니교회로서 전도와 교육, 봉사에 힘쓰며 전국 교회에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어 왔으며 새로운 모범과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대외적인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4

생활 속 불안장애 치료 빠를수록 효과



박종학 안수집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40대 초반 가장으로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 중인데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정리벽이 심하고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시작하려면 책상 정리부터 깔끔하게 해 놓아야 직성이 풀려 정리에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게 문제였다.

처음에는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수 분 정도로 짧았으나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 대학시절에는 1~2시간 정도로 길어졌다. 그리고 정리하는 횟수도 3번, 5번 등 홀수로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공부 시작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정작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책을 읽을 때도 글자 내용보다는 숫자에 집착하게 되어 공부에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업무시작 전에 테이블 정리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직장동료나 상사로부터 핀잔을 수없이 들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B부인은 30대 중반 가정주부로 청결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하여 손을 씻기 시작하면 보통 10분 전후가 걸렸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신발 벗을 때부터 걸옷을 모

두 벗기고 욕실로 직행하도록 하여 목욕을 한 후에야 방으로 갈 수 있게 할 정도였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잔소리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다른 가정에 비해 물 사용량이 10배가 넘어 언젠가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누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A씨나 B부인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잘 안되어 시도때도 없이 반복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되는 것을 강박장애(強迫障礙 : Obsessive-Compulsive Disorder)라 하는데, 노이로제의 일종인 불안장애에 속한다.

과거에 상영되었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란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길을 갈 때 보도블럭 수를 맞춰가며 걷는다는 음식점 갈 때 본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수저를 가져가는 강박장애 환자로 나오는데, 한번은 그가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현관문에서 거실로 들어가 지 못하고 찢찢매는 장면이 나온다. 그 집안의 거실 바닥 타일 크기가 너무 작아 평소 보도블럭을 숫자에 맞춰 걷던 방식으로는 짚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TV 프로에 심심치 않게 소개되는 저장 강박증도 일종의 강박장애라 할 수 있다.

집안에 온갖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 놓은 채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속에서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을 치우지도 못하게 하는 병이며,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증상이 특징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이 꽤 많은데도 정작 치료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왜냐하면 그런 증상을 하나의 습관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는 강박증상도 세월이

오래 흐르고 점차 심해지면서 당사자가 우선 괴롭게 되고 나중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도 불편을 느끼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이 있다. 발생 초기에 치료하면 경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증상이 생긴 지 5~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자. 치료가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문안교회학교에서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초등456 I 부는 1월 23(금)~25일(주일)에, 고등부는 1월 30(금)~2월 1일(주일)에 새문안 수양관에서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마쳤다. 이후 나머지 9개 부서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몸과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1) 겨울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 2) 기간 중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 3)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각 부서가 2015년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4)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대 잇기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새해 성경학교 일정

부서	날 짜	장 소
영아1·2부	3. 8(주일)	영아부실
유아1부	3. 7(토)	유아부실
유아2부		유아부실
유치1부		유치부실
유치2부		유치부실
초등123부 I 부	2. 7(토)~8(주일)	언더우드교육관
초등123부 II 부	2. 7(토)~8(주일)	언더우드교육관
초등456부 I 부	1. 23(금)~25(주일)	새문안 수양관
초등456부 II 부	2. 27(금)~3.1(주일)	새문안 수양관
중등부	2. 13(금)~15(주일)	새문안 수양관
고등부	1.30(금)~2.1(주일)	새문안 수양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천민지 교우(대학부)

꽤 오랫동안 관계가 망가진 사람이 있었다. 시작은 이기적이었던 나의 말 한 마디였다. 처음에는 온통 억울한 마음과 분노만 가득했다. 겨우 그런 말 한 마디 때문에 내게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으로만 가득했었다.

그렇게 한 계절이 흐르고 나서도 여전히 틀어진 관계로 인해 힘이 들었다. 조금씩 무너지긴 했지만 불뚝불뚝 미움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문득 내가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단지 그럴 뿐, 여전히 나는 미움으로 차 있었다.

또 한 계절이 흘렀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등등의 성경 구절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자꾸만 나의 사랑이 부족한 마음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무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럴수록 나는 더 크게 소리쳤다.

“나도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한 계절이 더 흘렀다. 이쯤되니 미움과 분노보다도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 왜 좀 더 참지 못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한 번 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저

때 저렇게 행동했다면, 하며 홀로 의미없는 되새김질만 꾸역꾸역 계속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흘러, 1년 전 이맘때로 돌아온 것이다.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잔뜩 먼지가 쌓여 뿌옇게 흐릿해져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매주 드리던 예배 가운데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이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나를 비난하고 나무라는 듯해서 거부감이 들며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박혀 들어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순간 눈물이 울컥하며 마음이 아파왔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으나 내가 귀를 닫고 있어 미처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이 내게 조금 들려온 느낌이었다. 죄를 지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후회와 자책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던 내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듯했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그 시간을 보내고서야 간

신히 아버지의 뜻, 그 끄트머리를 깨달았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중요한 것은 분노, 후회와 자책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없이 나 홀로 하는 끊임없는 자책과 후회는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은 날, 같은 신앙 안에서 관계가 망가져 서로를 상처주었던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다른 할 말을 찾지 못해서, 내가 그 때 미안했었노라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그 동안 서로 벽을 쌓아왔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웃음은 금세 피어났다. 대화도 다시 시작되었다. 아직은 서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했다.

오랫동안 심장 한 편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추 하나가 조용히 사라진 이 시원함을 한 마디

로 표현할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다. 다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틀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가로막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 스스로 정당하다고 외쳤던 그 고집과 생각들이 교만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물론 뺏속 깊숙이 깨달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다.

끝으로, 새문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신앙공동체 가운데에서의 관계가 매일 새롭고 건강하기를 기도해 본다. 나아가 나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기를, 그리고 나의 입술 또한 사랑으로 소리낼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창



백영빈 교수

눈빛이 반짝였다.
언제부턴가
눈과 눈이 바라보고
영영 헤어지지 못한 일이다.

세상이 환해졌다.
내 손에 얹은 너의 손
그 위에
꼭 붙든 또 하나의 손 때문이다.

사랑이 번지고
눈빛이 반짝이고
세상이 환해진 건

누군가 생명으로
열어놓은
창 때문이다.



최초의 연합예배

『1894年(甲午)是年 公議會會長(공의회회장)은 裴緯良(배위량, William M. Baird)이라 是年에 선교사 元杜尤(언더우드)난 전도의 방침을 확장하야 徐相崙(서상륜) 金興京(김흥경) 朴泰善(박태선) 劉興列(유흥렬) 등으로 경성 근방에 전도케하고 申和淳(신화순) 都正熙(도정희) 李春景(이춘경) 등으로 高陽(고양) 金浦(김포) 등지에 전도케하니 동시에 四五處(4~5처) 교회가 신설되고 醫師(의사) 惠論(혜론, John W. Heron)은 銅峴(동현)에 병원을 설립한 후 一邊(일변)으로 疾病(질병)을 救療(구료)하며 一邊으로 福音(복음)을 宣傳(선전)하야 隱然(은연)히 교회를 成立(성립)하였더니 其後(기후) 병원이전시에 교인은 南大門外(남대문외)와 勝洞教會(승동교회)로 分(분)하야 각기 大會(대회)를 意成(의성)하니라』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북장로교의 로즈(Harry A. Rhodes, 魯解理) 목사에 의하면, 1890년대 선교사들은 현재 롯데 호텔이 있는 곤당골과 서대문 밖의 모화관(慕華館)앞, 남대문 옆 책방이 즐비한 창동(倉洞)쪽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당시 새문안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교인들을 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언더우드 목사는 새문안교회 동쪽과 중심부에 별도로 집회장소를 마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언더우드 목사가 미국에서 돌아오자 새문안교회를 담임하던 기포드(D. H. Gifford, 奇普)목

연못골교회 주변 민가(18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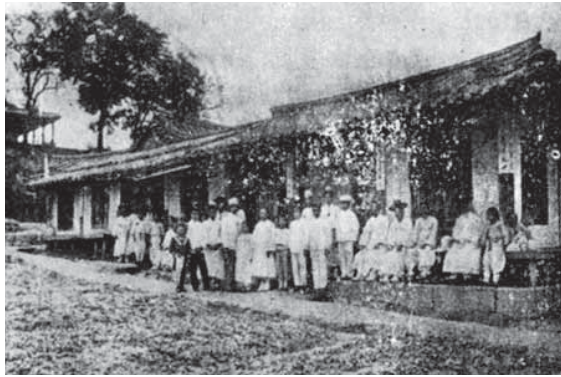
사는 1895년 9월 연못골교회로 전임했다. 서울은 서부에 정동교회(새문안교회), 동부에 연못골교회(연동교회) 그리고 중앙에 곤당골교회(승동교회)의 3각 선교체제를 구축하였다.(새문안교회100년사)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는 ‘경성부(京城府) 연동교회(蓮洞教會)가 성립하다 선시(先是)에 선교사 민노아(F.S. Miller, 閔老雅) 조사(助師) 김흥경(金興京)이 협력전도하야 신자점기(信者漸起)함으로 교회가 설립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흥경은 언더우드 목사가 파견한 조사였

연동교회(1907년)





구리개 제중원(1886년)

다.(새문안85년사) 당시 미국북장로교 대표인 언더우드와 로즈 목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새문안교회당이 협소하여 상당수의 새문안교인들이 1894년 개척되는 연못골교회로 옮겨갔다. 연동(蓮洞)은 지금의 효제동, 종로5가, 인의동, 연건동에 걸쳐있는 마을로 인조대왕의 사저인 어의궁이 있었던 동네라 어의동(효제동)이라 했다. 이곳에 큰 연못이 있어 이 일대를 연못골이라 했다. 1907년 연못을 메운 뒤 어의동보통학교(효제초등학교)가 들어섰다.

곤당골을 곤담골이라고도 불렀는데, 곤담골이란 고운담(美澗)으로 연결된 집들이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미동(美洞)이라 부르기도 했다. 곤당골 근처에는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었으며 소수의 백정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선교부는 이곳에 남자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한옥 한 채를 사서 1892년 9월부터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이 그 건물을 맡게하여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새문안교회는 그곳에서 저녁예배를 드림으로써 정식예배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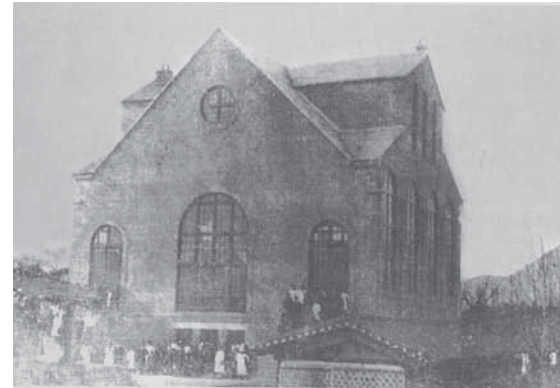
게일의 뒤를 이어 무어(Samuel F. Moore, 牟三悅)가 1893년 5월부터 곤당골에 거주하며 전도, 9월 중순부터 정식 주일예배를 시작한다. 당시 교인은 16명이었고 조사는 김영옥(金泳玉)과 천광실(千光實)이었다. 그러나 구한말 격동기인

1895년 백정 한 사람의 입교로 교회 안에는 큰 동요가 일어났다. 때문에 양반들은 광교(廣橋) 근처에 홍문섯골교회를 설립한다.

곤당골교회는 머슴, 요리사, 백정 등 하층민들이 계속 입교하여 성장하나 1898년 화재로 예배당이 불타고 말았다. 이듬해 가을 교인들은 홍문섯골교회로 들어가게 된다. 무어목사는 주일학교 반사들과 교인들로 하여금 제중원(濟衆院, 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을 방문하여 환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찬송과 기도로 그들을 위로케 한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02년 서울시찰회(Seoul Session)가 홍문섯골교회를 폐쇄시키자 선교사들은 150명의 교인들을 기도처가 있는 제중원(구리개병원)에 모이게 하여 동현(銅峴, 구리개)교회가 설립된다.

1902년 3월 16일 주일 오후에 새문안교회와 연동교회 그리고 동현교회 교우 300여명이 동현교회의 예배처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최초의 연합예배였다. 동현교회는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李訥瑞)목사가 담임했다. 동현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새문안, 연동, 동현교회 교우들이 매주일 오후마다 연합예배를 드리고, 3개월마다 연합으로 성례식을 거행하는 등 세 교회가 한 계획과 한 목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어 갔다.

그러나 제중원이 선교병원이 되자 매달 500명의 환자를 치료하게 되어 병원확장이 시급해졌다. 장로회선교회는 미국 클리브랜드의 실업가 헌금으로 1904년 남대문 밖 북송아골에 11,000평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여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병원(The Severance Memorial Hospital)을 11월 건립했다. 이에 따라 제중원 터와 건물은 정부에 환수된다. 그래서 2년8개월 넘게 드리던 연합예배가 끝나게 된다.



승동교회(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는 京城府(경성부) 南大門外教會(남대문외교회)가 南大門外(남대문외) 世富蘭禪病院(세브란스병원)에 설립하다 先是에 同病院(동병원)이 銅峴(동현)에 있을때 원내에 會集禮拜(회집예배)하던 信者一部分(신자 일부분)과 弘文洞教會(홍문동교회)의 信者一部

分이 會合成立(회합성립)하였난대 (중략) 小部分(소부분)의 信者(신자)난 南大門外(남대문외)에 교회를 설립함에 宣教師(선교사) 元杜尤(언더우드)가 管理(관리)하고 醫師(의사) 魚不信(어부신, Oliver R. Avison)이 盡誠幫助(진성부조)하야 교회가 漸進(점진)되고 崔容鎬(최용호)가 助師(조사)로 視務(시무)한다고 기록하고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리개를 떠나 북장로교선교부가 마련해준 승동(承洞)땅에 승동교회(承洞教會)를 설립하는데 선교사 郭安蓮(곽안련, Charles Allen Clark), 吳越藩(오월번, A.G. Wellbon)과 助師 徐相崙(서상륜, 李汝漢(이여한) 등이 계속 시무하였다. 후에 길선주 목사가 절골(寺洞)앞 동네에 있으므로 이를 이기라는 뜻에서 勝洞教會로 제안하여 개명한다. 새

글_ 사료관장 김홍배 집사

교육2부 수련회 일정

대학부

일정 : 2015. 2. 24(화)~27(금) 3박4일
장소 : 현리수양관
강사 : 최영신 목사 · 유창근 목사 · 이승구 목사
주제 : Jesus All(엡 1:10)

청년1부

일정 : 2015. 3. 6(금)~3. 8(주일) 2박3일
장소 : 현리수양관
강사 : 정균오 목사
주제 : “백 투 더 가스펠!”

청년2부

일정 : 2015. 3. 13(금)~3. 15(주일) 2박3일
장소 : 현리수양관
강사 : 최영신 목사 · 구용회 목사



새문안유치원에서 맺은 인연, 팔십 평생 한결같이 이어져



이근성 명예집사 · 운영자 공로권사 부부

이근성 명예집사(84)와 운영자 공로권사(82)를 만나 새문안교회와 얽힌 에피소드와 평생 봉사하신 삶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집사님은 새문안교회와의 인연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둘 때 서울로 왔고 4살 때부터 새문안유치원에 다녔어요. 아버지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저의 외할아버지는 평양 장대현교회 합창단과 관악부를 지휘하셨어요. 새문안교회 50주년 기념행사 때 6살이었는데 새문안유치원생들, 성가대원과 일반석을 대상으로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제 손자가 새문안교회 100주년 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새문안유치부생들을 대상으로 지휘를 하다가 돌아서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지휘를 했지요. 그렇게 서울에서 살다가 8살 때 평양으로 다시 갔지요.

언제 다시 남한으로 오셨나요

1·4 후퇴 때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52년도에 새문안교회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김영주 목사님이 이북으로 납치를 당해서 당회장 목사님도 없고 강태국 임시목사님이 계셨지요. 성가대도 없어서 젊은 사람들 이십십 명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지휘를 했어요. 민창식 집사님, 송순옥 권사님 자매, 주장돈 집사님 형제분 등이 함께 참여했지요.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때 성가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캐럴을 불렀어요. 저는 2년 정도 성가대 활동을 하다가 강신명 목사님 허락 받고 부목사님이던 황광은 목사님을 따라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로 가서 7년 8개월 동안 지휘를 하다가 새문안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헌금송과 아멘송을 영암교회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제가 작사를 했어요. 악보를 직접 그리고 가사를 붙이고 곡을 썼지요. 연합회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강신명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해주신 첫 주례가 저의 부부 결혼식이었는데 목사님이 사임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례를 서 주신 부부가 우리 아들 결혼식이었지요.

권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이 집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1955년도에 학습세례를 받았어요. 강남에 처음 구역이 생길 때 구역장을 하고 교구 총무를 했어요. 구역장을 하시던 김여준 권사님이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제가 맡아서 했지요.

그 때는 구역이 나눠지지 않아서 신사동부터 양재까지 강남 전체를 혼자서 담당했어요. 저의 집이 단독주택이라 집에서 주로 구역예배를 드리고 친교모임도 겸해서 밥을 해서 함께 먹곤 했지요. 그 당시가 60년대인데 거의 10년을 총무와 구역장을 겸해서 했어요. 모든 교우가 한 가족처럼 구역예배를 드리곤 했지요.

구역장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느 교인 집 앞에 신문이 잔뜩 쌓여 있으니 비관해서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심방을 갔지요. 어느 집은 심방을 가면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는 가정도 있었고 늦게 왔다고 내쫓는 가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토권을 주었고 목사님도 차가 없어서 심방 다닐 때 걸어서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많이 걸어 다니니까 목사님이 병이 나시기도 했어요.

대심방 때는 의례 집에서 목사님께 식사를 해

드렸는데 언제부터인지 외식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그런 걸 보면 예전보다 친밀감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권사님은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셨나요

8교구 초대 총무, 여전도회 초기 임원을 하다가 회장과 협의회 회장, 권사회 회장과 제직회 부서기, 유치부 부장을 했는데 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했어요.

봉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새문안교회 100주년 기념행사 때 예산이 부족해서 친교부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 여자들이던 임원들이 돈을 모아서 테이블보부터 꽃병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천을 떠다가 테이블보를 직접 만들고 냅킨에도 우리 교회 나이를 적어서 그 뜻을 기

렸지요.

식사 때 장로님들 방을 따로 마련했는데 미국 대사와 여러 나라 대사들이 함께 와서 장로님들 방으로 안내를 했지요. 그 당시 새문안교회가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10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 때는 8교구에 MBC 피디가 있어서 MBC 실내운동장을 무료로 빌려주었지요. 각 교구마다 체육복과 모자를 색깔별로 준비했어요. 음악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집사가 마이크를 대고 하루 종일 전자오르간을 연주했는데 그 녹음이 없어서 아쉽네요.

100주년 기념 체육대회는 평생 잊지 못할 전무후무한 행사였어요. 

글_ 변선희 집사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다하길 다짐했던 시간



다음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교육 1부는 지난 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언더우드 교육관 4층 비전홀에서 “2015 온세대 어울림교육 신년 교사·부모 세미나”의 이름으로 강습회를 개최했다.

150여명의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한 이 세미나는 친교의 시간을 시작으로 교육 1부장 조성도 장로의 격려사와 부서별 소개의 시간, 교육 1부 지도 목사인 장석현 목사의 온세대 교육과정 소개, 총회교육자원부 서가영 목사의 제4차 교육과정 소개, 그리고 각 부서별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이번 세미나가 이전까지 교육 1부에서 주최했던 여느 행사들 보다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교회학교 각부서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개와 인사를 나누

고, 2015년 한 해 동안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로서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새문안교회 교육 1부의 교육목회 커리큘럼인 ‘빛(Light)의 커리큘럼’과 ‘어울림교육’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새문안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육목회적 사명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각 부서에서 교사로 헌신할 때는 자기 부서의 교육목회만 이해하고 다른 부서



4차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하는 서가영 목사

와 어떻게 교육목회적으로 연결되는 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울림교육이라는 통합적인 틀 안에서 각 부서를 조망해보니 전체가 어울림 교육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각으로 보니 모든 부서가 한 부서와 같고, 우리 부서와 남의 부서의 관계가 아닌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할 어울림교육 공동체라는 통찰을 갖게 한 시간이 되었다.

교육 1부 지도목사인 장석현 목사의 빛의 커리큘럼과 어울림교육 소개 이후, 총회교육자원부의 공과교재의 집필위원인 서가영 목사를 초청하여 4차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강의를 들었다. 집필위원으로부터 직접 공과교재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과교재가 어떤 의도로 집필 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과교육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부서별로 모여서 부서별 워크숍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각 연령에 맞는 심방과 반 목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가야 하는지, 또한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심방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요일 오후, 3시간이 넘는 동안 교제와 소개, 강의와 토론, 그리고 도시락을 나누면서 함께 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껏 친밀해질 수 있었고,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에 열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정성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새**

글_ 정평진 전도사



어울림 교육 신년 세미나를 마치고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부장단, 교육1부 임원들이 함께 모였다.

교회학교의 새로운 희망을 보다

2015년 1월 10일 교육관에서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와 교역자, 부모님들과 함께 어울림 교육 신년 세미나를 진행했다.

아직도 교사라는 말이 어색한 나에게는 어려운 자리였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며 헌신으로 나아가는 교사들을 보며 함께함이 큰 기쁨임을 느끼는 자리였다. 교육1부 부장님이신 조성도 장로님과 교육1부 지도 목사님이신 장석현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의 교회학교 감소현상과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유아부 교사 4년째가 된 지금, 하계선교 사역이나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였다.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성인의 출석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다음세대인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 모인 교사들을 보며 교회학교의 희망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올 해 우리교회 교회학교는 어울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 나예요”(유아2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한다.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하나님 나라의 다음세대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한다. **세** (유아2부 믿음반 담임 김예솔)

듬뿍 사랑해주고 힘써 기도하는 교사가 되길 다짐

지난 1월 10일에는 어울림교육 신년세미나를 통해 교육1부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여러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간절한 사랑이 나에게 깊이 전해졌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사들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

녀인 우리 아이들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작은 별처럼 빛을 비추며 자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또 등대로 쪽쪽 자라서 정직한 다음세대가 될 수 있도록. 늘 앞에서 듬뿍 사랑해주고 뒤에서 힘써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건이었다. **세** (유아2부 믿음반 부담임 이은정)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 온 마음으로 섬긴 시간들



중·고등부가 함께 스킷드라마 공연



중·고등부가 함께 위십공연

새문안교회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훈련된 학생과 교사들(28명)이 2015년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간 태국단기선교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빠듯한 학업일정보다 신앙의 가치를 앞세운 학생들과 부모들은 선교를 떠나기 한 달 전부터 매일 모여서 경건을 훈련하고, 태국에서 하게 될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온 몸과 영혼으로 자신을 드렸다.

태국 선교일정이 어땠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 있겠다. 떠나기 전 훈련과정부터 선교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한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돋보일 뿐이었다. 그저 우리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지금껏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왔는지, 또한 남을 배려하고 섬기기에는 너무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했고, 이 감격을 위십으로, 찬양으로, 스킷 드라마로 전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했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했다. 예수님을 몰라서 무지와 어둠 속에 지내는 수많은 태국인들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왔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세**

글_ 박대석 전도사

친구들 전도할 용기 얻었다



김지수 교우(고등부)

태국 단기선교 11기가 올해 간다는 것은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알려주셨다. 난 어머니께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10기를 갔듯이 11기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난 큰 고민 없이 신청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태국 단기선교 때문에 학업일정을 한 달 이상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짝 반대하기 시작하셨다. 선교는 커서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방학이라 이때 공부 많이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힘들지 않다는 이유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다. 선교나 공부나 선택의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한 후 미래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후회를 하게 될 텐데 공부를 안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선교를 안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께는 갔다 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 그리고 태국 단기선교 훈련 기간에 백상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따름으로 손해 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겪게 된 것 같다.

태국선교를 가서 여러 느낀 점들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이 믿음이 좋고, CCM(복음송)

도 많이 듣고 알며, 모태신앙이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었다. 태국에 와서 박대석 전도사님을 통해 너희들이 위선자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제껏 나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학교,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되새겨보니 진짜 나는 위선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죄를 별로 안 짓고 산다는 교만에 빠져있기도 한 것 같았다. 16일 저녁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며 나의 수없이 많은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기도에 임하는 나의 자세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지니가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바른 기도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부터 열 가지가 다 감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태국선교를 갔다온 후로 결단한 것들이 (59면으로 이어짐)

교회와 일상 삶의 일치를 소망하게 됐다



박준용 교우(중등부)

태국선교에 10기로 참여했을 때는 어려서 더 열심히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11기에 다시 한번 참석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싶어서 태국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 지원하였다. 무엇보다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한 마음으로 태국 땅에 나아갔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전도사님께서는 너희 안에 과연 진실된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위선자가 아니냐, 과연 너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태국사람들 앞에서 하는 찬양과 위십(Worship)이 우리가 좋아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생각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이끌 것 이고 언젠간 너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이러한 일이 있고난 후 나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위십을 할 때마다 가사 하나하나 (60면으로 이어짐)

있다. 바울이 늘 한결같았던 것처럼, 나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일치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다. 내 친한 친구들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CCM을 들을 때, 가사보다는 멜로디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사에 집중해야겠다. 또한 매일의 시작을 성

경읽기로 시작하고, 고등부에서 하는 ‘만나6’로 큐티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내가 보통친구들보다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몰래 조금씩 하는 게임이 가져오는 거짓말 때문에라도 게임을 그만 뒤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큼 더 공부도 열심히 하되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겠다. 

에 집중을 하였는데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이라는 가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에 큰 은혜를 체험했다. 매순간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태국 단기 선교하는 내내 은혜가 있었다.

태국 단기선교를 와서 내게 있어 변화된 점은, 자고 일어나는 것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부터 챙겼는데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된 것.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베풀 때에 내가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고 베풀었던 적이 있었던 거 같다. 그런데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참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태국에 와서 편식하는 습관을 버리게

되었다. 또 내가 찬양팀 활동을 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찬양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해야 한다. 한국은 신앙생활 하기는 편한 곳이지만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힘든 것 같다. 그러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좋겠다. 이제 태국 선교가 끝났다고 해서 태국땅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태국에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란다. 한국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 좋겠고, 위선자가 아닌 교회와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새**



새교우 Album



강시내
5교구 3여전도회



고은희
2교구 청년부
인도자 최문기



공재규
5교구 7남선교회



김명성
9교구 북한선교부



김성희
8교구 1여전도회



김소담
8교구 대학부



김이레
7교구 청년2부



김철우
1교구 대학부



박찬성
7교구 청년부



복지은
8교구 대학부
인도자 양혜석



신은희
4교구 2여전도회
인도자 김수연



신환주
6교구 청년부



안형진
10교구 청년부



유선미
3교구 청년부



이수은
7교구 2여전도회



이재석
2교구 7남선교회
인도자 김지현



이지연
1교구 청년부



이희영
4교구 아가페봉사부
인도자 문혜란



정진희
2교구 청장년부
인도자 최용희



황별
5교구 청년3부

12월 28일부터 1월 25일까지 20명의 새교우가 새교우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구제역, 생명에 대한 폭력의 결과

하나님께서 “땅은 온갖 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1:24)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1)

구제역 재발에 위기감

최근 몇 년간 잠시 잠잠했던 구제역이 작년 연말에 또 다시 발생했다.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 수도권 인근 안성, 여주까지 확산됨으로써 방역당국이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2010년 11월. 우리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15만 726마리, 돼지 318만 511마리 살처분되었고, 조류독감으로 닭, 오리 545만 483마리, 염소 6148마리, 사슴 3053마리 등 모두 879만 9878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다. 무려 1천만에 가까운 가축들이 생매장되는 참혹한 상황을 목도하고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었다.

가축에 대한 배려없이 효율만 추구

잇을만하면 발생하는 구제역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집약화되고 효율만을 추구해온 현대 축산방식’에 있다. 공장화도 같은 농장에서 밀집 사육되는 가축은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살만 찌워 ‘고기’를 얻거나, 밤낮없이 ‘알’만 생산하게 하니 면역력이 있을 리 없다. 또 가장 값싸게 생산하려다보니 사육되는 가축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이다. 평생 답답하고 부적합한 환경 속에서 감금되어 사육되는데, 마치 사료를 고기로 전환하는 기계와도 같다.

소는 풀 대신 동물성이 섞인 사료에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를 함께 먹으며 사육되고 있고, 돼지는 평생 햇빛 한 줌 보지 못한 채 사육되다 사람들의 먹이가 되고, 암탉들은 움집달짝하지도 못한 채 누워 새끼들에게 젖만 먹여왔다. 닭은 태어나자마자 부리가 잘리고 사육되는데, 암탉은 A4용지 한 장 크기도 안 되는 닭장에서 밤낮없이 알만 낳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 가축들은 평소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백신에 찌들어 살아간다. 거세, 어미와 새끼의 분리, 무리의 분리, 낙인, 수송, 그리고 도살 등 모든 과정에서 가축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 오직 고통과 생명에 대한 폭력만이 있을 뿐이다.

교회부터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인식 바꾸어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는 모든 동물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일을 인간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또한 가축은 하나님의 창조 걸작 중 하나이며 생명공동체의 귀중한 일원이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누리듯,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와 우리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일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다시 확신하고,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방식의 방역에 분노하며, 공장식 사육 방식에 반대한다. 또한 동물권과 가축생활권이 보장되는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보낸다. **새** 글_ 김정례 권사

• 새문안교회는 생명의 쌀 기독교 운동본부의 협약교회이다. 땅과 물, 농부와 밥상을 살리는 유기농 쌀 농사를 농촌 교회가 생산하고 도시교회가 소비하기로 협약한 교회이다. 일 년에 네 번 부활절, 환경주일,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등 4번을 협약하고 친교실(부장 : 문현근 안수집사) 주일 식사를 생명의 쌀로 준비한다.

230회 추수감사절 30명을 추첨하여 유기농쌀 (생명의 쌀 기독교 운동본부에서 생산)1kg을 드립니다. 선물은 홍보부로 오셔서 받아주세요.

강현미	권혁배	김명숙	김복희	김은실	김인자	김정자2	김호영	박명숙	박인숙	신선아
신외숙	안경숙	양옥주	양인자	양정웅	오명자	오순희	유정옥	이경화	이우성	장미옥
장봉실	정수자	정지혜자	최운섭	최항우	한재형	현수원	현숙자			

231
성경
퀴즈

Puzzle!

출제자 | 서경애 권사

• 온가족이 다 함께 풀어봅시다.
• 성경퀴즈는 <개역개정판> 성경전서에서 출제됩니다.

가로열쇠

- ① 사도 요한이 편지한 일곱 교회 중 하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받은 교회. 주님께서는 영적인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고 하심(계3:14~18)
- ⑤ 제비를 뽑는 것(에3:7)
- ⑥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뽑은 일곱사람 중 하나(행6:5)
- ⑦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문 앞에서 이곳까지 쫓아가 쳐서 죽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되었다(수7:4~5)
- ⑨ 유다 자손의 기업 중 한 곳(수15:37)
- ⑫ 요단강 동편 바산왕 옥의 영토를 기업으로 받은 것 지파가 건설한 성읍 중 한 곳(민32:34)
- ⑬ 스룹바벨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성전문지기 자손의 한 조상(느7:45)
- ⑭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던 곳 중 한 곳(수12:22)
- ⑮ 여라므엘의 다른 아내(대상 2:26)
- ⑯ 라아마의 아들 중 둘째(창10:7)
13. 수리아 장군 나아만과 다메섹 왕이 섬긴 우상(왕하5:18)
14. 레위사람의 성읍 중 하나(수21:18)
-) 예후의 아들(대상2:38)
-) 아하수어로 왕의 신하 하만의 다섯째 아들(에9:8)

세로열쇠

- ① 베냐민이 낳은 아들 중 다섯째 아들(대상8:1~2)
- ② 히랍. 그리스의 알파벳의 끝 글자. 마지막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는 칭호
- ③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딸. 세겔 왕 하물의 아들 세겔에게 능욕당한 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여 야곱에게 매우 격정거리가 되게 했다
- ④ 가나안 주민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 바알신과 같이 섬겼다(삿2:12~15)
- ⑤ 히브리 달력으로 아달월 14,15일에 거행하는 유대인의 축제일의 이름. 바사국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하만의 악한 계획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9:21~26)
- ⑧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대하36:2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13.				
		14.			15.		16.
)				)			

• 마감일 2015년 2월 15일
• 보낼 곳 광화문빌딩 215호

• 이름
• 연락처

- ⑨ 므깃도 골짜기에 있던 수리아의 신(슌12:11)
- ⑩ 에브라임의 아들(대상7:20)
- ⑪ 레위 사람 즉 제사장의 마을 중 한 곳(수21:14)
- ⑫ 구약 제 22권째 성경. 지혜의 왕 솔로몬의 노래
- ⑬ 베냐민 자손 시므이의 아들 중 일곱째(대상 8:19~21)
14. 에돔 족장 중 하나(대상1:51)
15. 유대력으로 12월. 태양력으로는 2~3월에 해당되는 달(스6:15)
16. 시브온의 아들 중 첫째(대상1:40)

성경퀴즈 230 정답

치	유		부	스		사	사
	오	네	시	보	로		무
루	디	아		임	마	누	엘
시	아		브		서	기	
아		마	라			오	멜
	디		가	이	오		기
	브	나			므	낫	세
그	핫		아	모	리		텍

정답자 명단

강순자	강양자	강현미	권혁배	권혁중	길복순	김귀자	김금만
김금자	김명숙	김미영	김복희	김순자5	김옥련	김은실	김은영
김인자	김정숙	김정자2	김지은	김행자	김혜자1	김호영	노유미
민영숙	박명숙	박민숙	박은하	박인숙	박재옥	박정민	서신웅
성낙금	송선자	송은숙	송재모	송재은	신선아	신선희	신영희
신외숙	안경숙	양슬기	양성모	양옥주	양인석	양인자	양정웅
양혜석	오광길	오명자	오순중	오순희	유용례	유정옥	유춘옥
윤혜정	이경화	이민자	이복숙	이복희	이수남	이순애	이연호
이우성	이재옥	이종애	장미옥	장봉실	장정원	전현숙	정수자
정정아	정지혜자	정홍자	정희연	조규래	주영림	차일환	최복현
최옥자	최운섭	최치숙	최항우	최형표	태원식	편동숙	한재형
현수원	현숙자	홍성주	홍순찬	홍지영			



Cover Story

〈새문안〉 2월호 표지에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한택식물원의 비봉산 계곡을 담았습니다. 계곡 곳곳에 쌓인 얼음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어이 이겨 내려는 봄기운이 전해집니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나면 어느새 화사한 봄이 다가오고, 신록과 열기로 더욱 질푸른 여름을 지나 온 세상을 수놓는 단풍의 계절 가을을 맞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연과 우주의 섭리, 실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또 질서 있게 지으신 창조의 섭리에 무한한 경외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나날의 삶도 그 아름다운 창조 섭리에 한층 가까이 조화되길 소망해봅니다.

이번 호에선 특히 올해 새문안 표어인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에 맞춘 기획 특집이 첫 선을 보입니다. 또한 두 새문안 교우(박병근 집사·김미현 교우)의 헌신적인 봉사로 새문안스러운 우리만의 독특한 일러스트도 실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이제, 또 다시 새봄에 대한 새 희망을 품어봅니다.

글_ 이은경 집사(편집장)
사진_ 이덕일 집사(사진팀장)

2015년 2월호 / 통권 318호 / 2015년 2월 1일 발행 / 교회창립(1887년 9월 27일)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미디어 홍보부
발행인	이수영 담임목사
편집인	유진규
지도목사	백충현
편집위원	이형모 민현식 이희은 이준배 정애경 이명숙1 최현숙 태정원 김정례 이금복 박경은 원영희 김현찬 김혜숙2
편집장	이은경
취재기자	김두연 변선희 홍덕화 이준성 김영미 최규선 김혜미(해외통신원)
총무팀	최명희1 김동남 서원석 민분숙
교열팀	강선애 노금석 이은경3
사진팀	이덕일 김진수1
디자인팀	박병근 김미현
간사	김혁주

등록번호	서울 라09085 등록일 2001. 7. 25
인쇄처	(주)동국문화(02-718-501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9(신문로 1가)
전화	02-731-2816, 738-5996
팩스	02-733-8070
E-Mail	hongbo@saemoonan.org
Homepage	www.saemoonan.org, m.saemoonan.org

PHOTO News

공로장로추대식



1월 11일 3부 예배 때 공로장로 추대식이 열렸다. 오세영(사진왼쪽)장로가 공로장로로 추대돼 이수영담임목사로 부터 추대패를 받고있다.

제직은퇴식



1월 11일 2부 예배 시 제직은퇴식이 있었다. 공로집사·명예장로·명예집사(사진 위쪽) 총 33인과 공로권사·명예권사·명예집사(사진 아래쪽) 총 38인이 은퇴했다. (제직 은퇴자 명단은 4면 참조)

2015년 1학기 상담교육과정 교육생모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잠12:15)



1. 대상 및 인원

- ①대상 : 상담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및 목회자(사모)
- ②인원 : 선착순 60명 내외

2. 교육안내

- ①기간 : 2015. 3/5 ~ 5/21
(12회 교육+영성수양회 1박2일)
- 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9:30 ~ 오후 5:10
- ③장소 :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교육관 B1층 미션홀
- ④교육비 : 40만원(교역자/사모 20만원)
사전 등록시 35만원(교역자/사모 18만원)

3. 접수방법 및 문의

- ①모집기간 : 사전등록 2015. 1/25(주) ~ 2/7(토)
일반등록 2015. 2/8(주) ~ 2/22(주)
- ②접수방법 : 이름과 교회명 문자 후 온라인 입금
(국민은행 293801-01-165716)
예금주 : 새문안교회 상담교육)
- ③문의 : 우선영 간사(tel. 010-9468-3429)
오전 10시~오후 5시
zionaemi2212@daum.net

2015년도 1학기 상담교육과정 학사일정

	01주 3/5(목)	02주 3/12(목)	03주 3/19(목)	04주 3/26(목)	05주 4/2(목)	06주 4/9(목)	07주 4/16(목)	08주 4/23(목)	09주 4/30(목)	10주 5/7(목)	11주 5/14(목)	12주 5/21(목)
1교시 09:30-12:00	신체중심상담 김향숙 박사			부부관계이해와 상담 이명진 박사			대상관계이론과 기독교상담 김혜정 박사					
2교시 13:00-15:30	기독교상담의 특성과 내담자이해 이규민 교수			DISC 홍광수 박사			가정폭력과 상담 최종환 목사			트라우마와 상담 정윤경 박사		
3교시 15:40-17:10	집단사례세미나 권진숙 박사											

13주 (5/28~29, 1박2일) / 상담자의 영성훈련을 위한 수양회
윤지옥 목사(상담교육과정 지도목사)

2015년도 1학기 상담교육과정 강사소개

대상관계이론과 기독교상담 (6주 18시간)	기독교상담의 특성과 내담자이해 (3주 9시간)	신체중심상담 (3주 9시간)	부부관계이해와 상담 (3주 9시간)	가정폭력과 상담 (3주 9시간)	트라우마와 상담 (3주 9시간)	집단사례세미나 (12주 18시간)	DISC (3주 9시간)	전문봉사교육원 원장
								
김혜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 대학원대학교목회교수	이규민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장	김향숙 박사 학이세일리 가정사역봉성교육원장	이명진 박사 연세대학교명지병원 임상심리학과교수	최종환 목사 가정폭력상담 전문가	정윤경 박사 한국인기가족치료 연구소 상담교수	권진숙 박사 뉴라이프 상담센터 원장	홍광수 박사 홍광수 DISC연구소 대표	김동배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본 기관은 한국목회상담협회 인증기관입니다.

○ 본 과정에서 24학점을 이수하면 2급, 36학점을 이수하면 3급 한국목회상담협회 기독교(목회)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3학점: 1시간 12주).

새문안아카데미 - 전문봉사교육원